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98.01 (-3.68)	766.79 (-6.47)
금리 (연세 9년)	환율 (원·달러)
2.890 (-0.030)	1325.10 (-13.70)

반도체·자동차 호조
수출 11개월째 플러스
연말까지 이어간다
02



가계부채 은행 탓?... 대출관리 실패한 당국, 뒷북 논란

당국 엄격한 대출 관리 주문에 5대 은행 2개월간 23차례 인상 이복현 원장 “원하던 바 아니야” 은행권 “가계부채 잡고 싶다면서 부동산 활성화 동시 추진은 모순”

가계대출 급증세로 은행권에 속도조절을 요청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이란 방법으로 이익만 챙겼다고 되려 은행권을 비판하고 있다.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대출금리 인상을 진행해왔는데 이제야 “원하던 바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은행권은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KBS ‘일요일진다 라이브’에 출연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상반가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금리인상 등 손쉬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금감독장은 지난달 가계대출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비난의 화살을 은행권을 돌린 것이다.

실제 금감독은 지난달 17개 은행 가

계대출 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주문내용은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 목표인 연간 2~3% 범위에서 가계대출을 취급 ▲자산건전성 관리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 확대 자제 등이었다.

간담회 후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속도조절 주문에 대출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이번 달까지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을 7차례 진행했고, ▲KB국민은행 6차례 ▲우리은행 6차례 ▲하나은행 2차례 ▲NH농협은행 2차례 순이다.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총 23차례가 넘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간담회 당일에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영업경쟁 과정에서 대출을 줄이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늘리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하한다”라며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달라”고 말했다.



한미 공군 연합 실사격 훈련

공군 F-35A 전투기가 26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무인공격기 역할을 하는 훈련용 표적을 향해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28일까지 ‘울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연습의 일환으로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결국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것은 금융당국이고, 결국 시장 왜곡 등 불만소리가 나오자 책임을 은행권에게 전가한 것이다.

은행권을 향한 이 금감독장의 공개 저격으로 시중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독장의 발언을 보면 당국은 대출 규모만 관리 주문한 것이고 금리를 올리라고는 하지 않았다”가 되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관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가계부채를 잡고 싶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같이 추

진한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세자금대출 규제까지 시행되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또 다시 은행권이 비난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승용 기자 isy2665@metroseoul.co.kr

직구 4배 늘었지만 역직구는 축소

해외 직구, 의류·패션 중심 증가
중 한한령 여파... 역직구는 꺾여

최근 10년 간 해외 직구 규모가 4.1배 늘어난 반면, 역직구는 2019년까지 상승하다가 꺾이는 부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6일 발간한 ‘2024 유통물류 통계집’에 따르면, 2014년 1조6000억원이었던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는 2023년 6조7000억원으로 4.1배 늘어났다.

반면 해외 역직구(직접판매)는 2014년 7000억원에서 6조원 규모까지 성장했으나, 2019년 성장세가 꺾이면서 2023년 1조7000억원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구시장은 의류·패션잡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쿠팡점프를 이뤘고, 역직구는 K뷰티 관련 품목 판매가

늘어나다 중국 한한령(限韓令)으로 꺾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은 “2021년까지 해도 아마존, 베스트바이 등 미국 쇼핑몰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직구에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았다”며 “알리·테무 등 C커머스 플랫폼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국내 진출이 본격화됐던 2023년부터는 중국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구의 성장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중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는 “전체 역직구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품목으로는 화장품이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가운데 2017년 한한령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관광뿐 아니라 화장품·식품·컨텐츠 구입을 제한하면서 중국 화장품 역직구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6명당 1명 알바... 韓 시간제근로자 증가 1위

시간제 근로자 수 급증
전체 임금근로자의 16% 달해
15~29세 청년층 증가폭 최고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자의 증가폭 비교에서 주요국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이른바 ‘알바’라 불리는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국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2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시간급을 받은 시간제근로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6.1%에 달했다. 지난 2018년(12.2%)과 비교해 3.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근로자 8명당 1명이었던 알바 종사자 비중이 불과 5년 만에 6명당 1명꼴로 커진 것

이다.

반면, 지난해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6.2%로 2018년(16.5%)보다 되레 줄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1.9%, 18.0%로, 5년 전(12.7%, 19.0%) 대비 0.8%p, 1.0%p 감소했다. 그리스는 같은 기간 10.4%에서 7.9%로 시간제의 비중이 무려 2.5%p 작아졌다.

코스타리카(-3.4%p)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콜롬비아(-2.5%p), 네덜란드(-2.1%p) 호주(-2.0%p), 영국(-1.8%p), 슬로바키아(-1.8%p), 스위스(-1.7%p), 슬로베니아(-1.4%p), 이탈리아(-1.3%p), 폴란드(-1.1%p), 포르투갈(-1.0%p) 등이다.

2018년 기준 한국보다 시간제 비중이 컸던 스웨덴은 13.5%에서 11.7%까지 감소했다.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도 각각 0.5%p, 0.3%p 내려갔다. OECD가 함께 제시

한 브라질(비회원국) 역시 15.7%에서 13.8%로, 우리나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인용해, 지난 2012~2022년 기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연평균 2.5%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폭인 1.4%를 크게 웃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미만 중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시간제 증가폭(22만7000명→29만명)이 컸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60.8%는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시간제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일부 응급실 단축·파행운영 관리 가능... 9월1일부터 정상화”
▲ 강정애 보건장관 “광복회 행사 발언, 정치행위로 생각할 여지 있어” /사진 뉴스1

▲ 원안위원장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대로면 위험 없어” /사진 뉴스1
▲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 설립 잇따르자... 인근 신고가 ‘속출’



▲ 김문수 “제주 4·3은 공산폭동... 국가사과는 양민 희생에 대한 것” /사진 뉴스1
▲ 국힘, 이재명 ‘독도 조사단’ 지시에 “과담 선동 대신 회복 전념하길”

반도체·車 호조... “수출 우상향 흐름, 연말까지 이어간다”

산업부, 수출동향 점검회의
7월 누적 수출액 3925억 달러
무역수지 14개월 연속 흑자 기록
“10대 수출국 중 韓 증가율 1위”
8월도 수출 플러스·흑자 확실히

올해 5월까지 글로벌 수출 상위국 중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도 월간 수출실적 플러스와 무역흑자도 확실히 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은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누적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7월 누계로는 268억달러 흑자다.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103억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7월까지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769억달러, +52%)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424억달러, +2%)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달

러, +0.2%)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 선박(129억달러, +19%), 석유제품(310억달러, +9%), 석유화학(286억달러, +7%)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작년 10

월부터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9.9%로 글로벌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홍콩 포함, +4.7%), 멕시코(+4.4%), 미국(+1.8%) 등 6개국은 플러스, 네덜란드(-5.3%), 일본(-3.2%), 프랑스(-1.2%) 등 4개국은 마이너스다.

박 1차관은 “8월에도 11개월 연속 수

출 플러스와 15개월 연속 흑자 달성이 확실히 된다”며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5일 발생한 이스라엘=헤즈볼라간 교전과 관련 “현재까지 원유 및 LNG 국내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선적 또는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도 정상 운항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와 물류비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 중동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I 교육이 미래의 VISION!



시가 바뀌갈 미래

그 미래를 가장 먼저 경험해 보고 배우며 상상해 볼 수 있는 곳
AI 교육시스템으로 미래 인재를 만들어갈 중앙대학교입니다

■ AI-SW 캠퍼스 체계 ■ e-Advisor ■ 챗봇챌리 ■ Rainbow System

CAU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4. 9. 10. (화) ~ 13. (금)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02)820-6393



공간생물학 연구방향 등 공유 오가노이드-바이오 점점 확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내달 4일 세미나
공간 단백질 체학 활용 질병연구 등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와 사례 소개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재생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오는 9월 4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와 첫번째 세미나를 시작한다. 오가노이드와 공간 생물학에 관한 트렌드와 연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향후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오가노이드와 바이오 업계와의 점점 늘려갈 계획이다.

첫 번째 세미나는 ‘최첨단 기술을 위한 세미나 시리즈: 오가노이드와 공간 오믹스’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간 생물학의 중요성과 활용에 집중, 조직 내 세포들의 공간 관계를 연구하는 공간 생물학 개념과 공간 단백질 체학 및 유전체학을 활용한 질병 연구, 암 미세환경 분석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간 생물학 데이터 분석 기법과 장비 설명도 진행한다.

세미나는 동물대체 실험 법, 오가노이드 최신 트렌드와 연구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견희홀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바이오 연구의 미래는 첨단 기술과 잘 구축한 연구 생태계의 원활한 통합에 좌우된다. 따라서 바이오 연구에서 단일세포 멀티오믹스와 공간오믹스 기술 도입은 큰 진전을 만든다. 첨단 분석 방법은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세포 기능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정밀성과 깊이를 제공한다. 오가노이드와 첨단 이미징 기술의 결합 역시 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손진영 기자 son@

구의 정확성을 높인다.

기술 결합은 세포 환경과 조직 내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을 가능케 하고, 생태계 축진자들은 연구자들이 이 기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 협력 축진, 교육 및 훈련 제공, 그리고 최첨단 도구와 플랫폼의 가용성 보장도 이에 속한다. 축진자는 기초 연구와 임상 응용을 연결하는 중개자로 실험실 성과가 실제 의료 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도한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유수의 대학, 병원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세미나 시리즈는 오가노이드 기술은 물론, 혁신 분석 장비와 기술을 탐구하고 바이오 업계와 연구 접점을 넓히며 미래 인력에 가치 투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씨는 9월 30일에도 한-아세안 바이오헬스 분야 네트워킹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車·조선 등 산업계 ‘노조리스크’ 확산… 하반기 수출 ‘위태’

노조간 파업연대 등 장기화 조짐
생산차질 등 브랜드 이미지 타격
“국가경제 치명적 영향 줄 수 있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전자와 자동차, 조선업계가 또다시 파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

파업은 단순히 제품 생산차질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수출에도 치명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조와 갈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달 중순까지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계열리성 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최근 교섭권과 파업권 등의 문제로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대표교섭권 및 파업권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른 노조와 연대를 고심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한 전삼노는 1년이 되는 이달 초까지만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보장받았다. 1개 노조라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을 하거나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현재의 파업권 역시 잃을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현재 전삼노를 비롯해 ▲구미네트워크(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0일 시청 남문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뉴스1

합 삼성전지지부(옛 DX노조, 5노조) 등 4개 노조가 있다. 이 중 3노조(동행노조)의 경우 전삼노의 총파업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측이 각각의 노조와 개별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조합원수 기준 최대 노조인 전삼노는 교섭대표의 지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전삼노(조합원수 3만 6000여명)의 대부분은 디바이스솔루션(DS) 소속으로, 이들의 파업은 주로 반도체 생산차질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노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 가결이 결정되면서 지난 19일 중앙노동

위원회(중노위)로부터 받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포함해 모든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과거 현대차와 단체교섭 동조화를 보여왔던 것과 달리 기아 노조는 최근 독자노선을 강조하면서 임단협 잠정 합의를 예단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기아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를 놓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75세 나이 제한과 할인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할 것과 관련해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는 연령 제한 없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2년마다 신차 구매 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아 노조가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에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강경한 입

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의 경우 지난달 2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파상파업(계일리성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 달째 계속된 파상파업에 약 2만여대의 생산차질을 빚으면서 수출물량도 급격히 감소했다.

르노코리아도 노사간 기본급 인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KG모빌리티는 노사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임금인상률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부결되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완성차업계의 파업 리스크로 지난달

국내 생산 자동차는 2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 같은 달 자동차 수출액은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1% 줄었다.

HD현대도 조선 및 건설기계, 전력기기 계열사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이 올해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큰 폭의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현대일렉트릭지회, 건설기계지회는 지난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이들 중 현대중공업지회와 현대일렉트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HD 현대의 다른 조선 계열사 노조인 현대삼호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세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韓, 트럼프 당선시 대중수출 6% 이상 감소”

한은 관세 등 미·중 갈등 격화 전망
“과거만큼 호조 기대하기 어려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교역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면서 중간재를 자립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고, 미·중 갈등으로 한·중간 생산 연계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이 이뤄져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對) 중국 수출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24년 19.1%로 감소했다. 미국이 같은 기간 17.1%에서 1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韓, 중국 기술수준 개선에 수출 비중 급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부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조립한 최종재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직접수출’은 중국의 기술수준이 개선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최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디스플레이는 한때 대중 수출의 20%를 차지했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자동차도 현지 생산 규모가 급감하면서

자동차 부품수출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과의 생산분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수출(수출연계생산)’은 증가하는 추세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부품을 만든 뒤 중국에 수출하거나 추가 가공과정에서 국내 생산에 재투입된 뒤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다.

최 과장은 “2020년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비중은 25%에 불과했다”면서도 “국내 수출용 중간재 생산활동의 35%가 중국을 목적지로 한 것을 봤을 때 연계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연계생산마저도 2022년부터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중국내 생산 부진과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지가 전략적으로 아세안(ASEAN) 등으로 이동하면서 수출연계생산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시 중국 수출 6% 감소

이날 한은은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

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2010년 후반부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아세안, 개발도상국인 라틴아메리카, 중동의 수입비중을 늘리고,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수입국 비중은 한국(-2%), 미국(-3.8%), 일본(-2.5%)이 감소한 반면 아세안(+2.3%), 러시아(+2%), 중동(+1.3%)이 증가했다. 트럼프 후보가 공약한 대로 관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상당폭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해리스 후보가 기존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경우 대중 수출은 3% 가량 줄어들겠지만 트럼프는 6%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5% 감소하고, 우리의 GDP도 1%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수준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앞으로 중국의 성장흐름이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하락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달 물가상승률 1%대 달성 가능성”

한은 머신러닝기법 활용 예측

한국은행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단기 물가 흐름을 예측한 결과 8~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고, 공공요금도 조정된다면 9월 물가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BoK 이슈노트: 부문별 물가상승률 평가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머신러닝 기법과 상향식 추정을 결합한 예측모형을 개발해 물가 전망에 반영했다. 국제유가, 환율, 실업률 등 주요 거시변수와 세부 품목별 물가지수, 주요소 판매가격, 농축수산물가격, 공공요금 등의 미시변수 등 2300여 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한은은 이날 예측 모형을 통해 소비자물가 단기 흐름을 예측한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은 ▲8월 2%대 초반 ▲9월 2%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은 양호한 기상 여건 등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가고, 석유류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이 반영돼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원물가는 더딘 수요회복 등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

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로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한은은 8~9월 공급물가지수와 소매 판매액지수를 포함한 근원상품 가격상승률은 1% 후반수준을 유지하고, 집세를 제외한 근원서비스물가 상승률은 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집세는 그간 전세가격 상승세 등이 반영되면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9월 물가가 1% 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동재 한은 과장은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최선의 예측치는 2.0%”라면서도 “유가가 환율이 더 하락하거나 공공요금 등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2%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지난해 8월 이후 유가·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지난해 8~9월, 농축수산물이 지난해 8월·10월 급격히 올라올해 예상보다 더욱 하락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앞으로 물가 흐름은 공급 충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목표수준을 향해 안정적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학적 정세, 기상여건, 등의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韓, 아이폰 1차 출시국?... 삼성, '프리미엄 반값폰'으로 맞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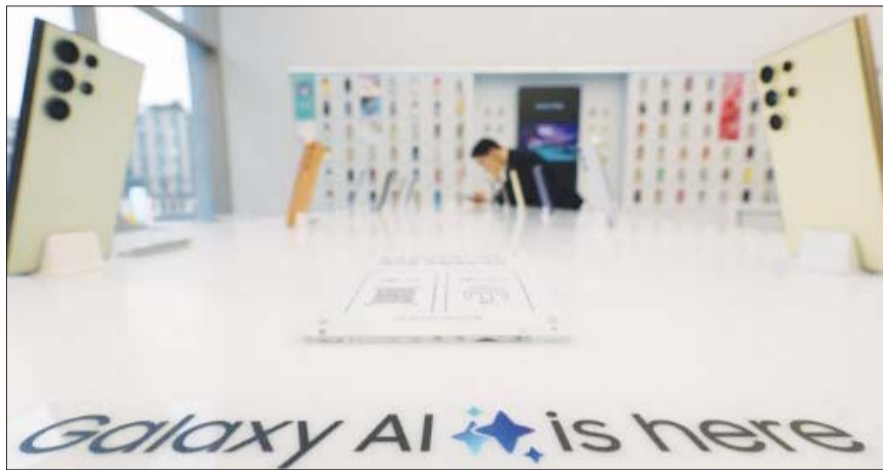
애플, 中 시장 부진에 韓 공략 강화
내달 10일 공개... 20일 판매 시작

삼성 '갤S24 FE' 80만원대 출시
프리미엄 보급형으로 점유율 방어
갤S24 시리즈 핵심 기능만 탑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이폰 신작 '1차 출시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도 방어전에 나섰다. 삼성은 단종을 고심했던 80만원대 갤럭시S24 FE를 출시키로 하는 등 고급형 반값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국내 점유율을 지키는 데 고삐를 죄고 있다.

2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9월 10일 아이폰16과 애플워치, 에어팟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열흘 뒤인 20일부터 공식 판매가 시작된다.

◆한국 14년만 아이폰 1차 출시국 전망
특히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



삼성전자의 첫 AI 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공개된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에 갤럭시 S24가 전시돼 있다. /뉴스시스

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예상대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이름을 올릴 경우 아이폰 출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최근 14년간 한국을 1차 출시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직

구를 이용해 1차 출시국에서 선보인 아이폰을 사들이거나 한 달 이상 기다렸다 구매해야만 했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 출시 당시 한국을 3차 출시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에선 1차 출시국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출시한 것. 업계에선 전자제

품을 판매해야 할 때 얻어야 하는 전과 인증 때문에 출시 일정이 밀리는 것으로 추측해 왔다.

하지만 올해 아이폰16을 두고는 지난 5월부터 한국의 1차 출시국 포함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율이 저조한 데다 지난 아이폰15 시리즈의 경우 아이폰 사상 한국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된다면, 아이폰의 국내 점유율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주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1분기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삼성 프리미엄 보급형폰 확대 '방어전 총력'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보급형 제품군을 확대해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단종을 고심했던 갤럭시S24 FE를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의 갤럭시S FE는 최신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S24' 시리즈의 핵심 기능만 탑재한 가성비폰이다. 저렴한 가격에 '갤럭시S24' 주요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알짜폰으로도 불린다.

실제 삼성은 그동안 중저가 폰을 통해 2분기 점유율을 방어해왔다. 시장조

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6% 점유율을 차지했다. 애플이 22%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다만, 3년 째 삼성전자는 2분기 아이폰의 20%대 점유율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방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분기 삼성 전자 점유율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디 3, A15 등 중저가폰을 출시하며 점유율을 소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저가폰 출시 덕분에 2분기 점유율을 방어했다는 분석이다. 출고가 39만9000원의 갤럭시 버디 3의 경우, 거의 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삼성은 단종을 고심해왔던 갤럭시S24 FE를 아이폰 16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16의 비싼 가격이란 단점으로 꼽히는 만큼 프리미엄 보급형 폰인 갤럭시S24 FE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갤럭시S24 FE는 플래그십 모델의 부품을 활용하면서 가격을 낮췄다.

이외에도 삼성은 보급형 제품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전용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퀵텀5'의 사전예약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55'에 양자보안을 적용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투자라는 말을 붙이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열심일 때도
투자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깊이 좋아하는 것만큼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 없으니까요.

당신의 삶도
당신의 자산도 성장하는 투자

N2, 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

N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2024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부문 3년 연속 1위

mRNA 백신부터 양자기술까지 6개 R&D 사업, 예타면제 확정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개최
4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2개 과학기술 인재육성 예타 면제

국가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 우수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이 미래 감염병 재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과학 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 지

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이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등 전략과제를 수행,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 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혁신 서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정책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해 예타가 면제됐고,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은 교육시설에 해당하고, 학교 설립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도를 먼저 이해하고
파도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변화의 흐름에 함께 하겠습니다

SK

한동훈 “‘제3자 특검’ 당내 이견 좁히는 절차 거치는 중”

민주당, 26일 밤의 테드라인 제시 여당 안 없으면 자체안 추진 경고
韓,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여부 결정 “정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약속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의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는 당 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장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26일을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내용이 담긴 특검법 발의 테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여당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여당에 주지 않고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된 자체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열 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후 기자들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이끌어 가려는 것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언제까지 발의하는 걸 보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발의하면) 오히려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채 해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다”라며 “100대 0의 이슈가 아닌 이상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후대

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다.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지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가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당 대표 한마디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민주당은 훨씬 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던져놨다.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의 분열 포석을 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항’

막말·사퇴요구 피켓·자질 논란 등 與野 공방

김 후보자, 과거 발언 대해 사과
‘실질임금 감소’ 질문에 “처음 들어”
野,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 의문 질타

김문수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회의장 입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사퇴 촉구 시위로 혼잡해지기도 했다. 진보당은 김 후보자가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상식적 노동협업 김문수는 사퇴하라’, ‘극우유튜버 김문수, 노동부장관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화물 노동자 파업·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 유가족’ 등에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입이 자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에게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달라”며 반박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공방으로 잠시 정화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다. 김위상 의원도 안 의원에게 “청문회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의 발언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집중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전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질 뻔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나서자 국민의힘 측에서 적법성을 따지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안호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열었고, 이후 정혜경 의원의 피켓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했다. 정 의원은 “여야 의

원님들이 제가 피켓을 때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피켓을 떼고 청문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고용시장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현황을 설명하면서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노동 환경이 좋아지진 않고 있다”며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나왔으면서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되나. 다 통계에 나와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이력에 집중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시설 확보, 소방관 처우 개선에 노력하셨던 본인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 노력하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시절 외치던 청년기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제 발언 중 상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대환·윤도현 기자 yunbgb0611@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왼쪽 세번째)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오른쪽 첫번째)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렉슨(왼쪽 두번째) 뉴질랜드 총리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尹, 뉴질랜드 총리와 양국 협력방안 논의

렉슨 총리, 내달 4일~5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렉슨 뉴질랜드 총리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일 공지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렉슨 총리는 9월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렉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렉슨 총리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렉슨 총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담에서 만난 바 있다.

1970년생인 렉슨 총리는 에어뉴질랜드 최고경영자(CEO)를 지냈고, 2020년 의회에 입성해 2021년 말 국민당 대표를 맡았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인재영입위원장에 ‘고동진 의원’ 임명

삼성전자 ‘갤럭시 성공 신화’ 주역
당내서 ‘반도체 특별법’ 입법 이끌어

국민의힘이 26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자 22대 국회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고동진 의원(조선·서울 강남병)을 임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장 이외에 법률자문위원장에 주진우 의원(조선·부산 해운대갑),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장에 조배숙 의원(5선·비례대표),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에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로, 당 내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이끌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개발을 주도해 ‘갤럭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이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할 때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일명 ‘중수층’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인재영입을 위한 초점을 중수층에 맞춘다는 세팅은 잘된 것 같다”고 평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미래를 먼저 만날 **SU** 있다 삼육대학교.

사람중심의 창의융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AI, SW 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
삼육대학교에서 먼저 만날 **SU**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안내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수시모집일 : 2024년 9월 9일(월) ~ 9월 13일(금)
입학처전화 : 02-3399-3377~3379
기타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ipsi.syu.ac.kr>)로 문의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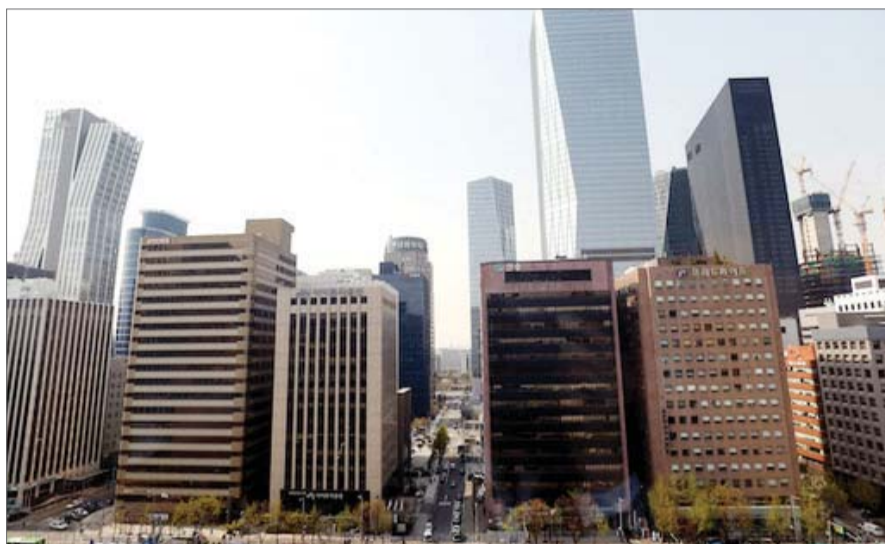
시중은행보다 금리 낮춘 지방은행... 주담대 유치 '고삐'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앞두고 이달까지 주담대 막차 수요 몰릴듯

시중은행 최저금리 연3.65~4.33% 인터넷은행 연3.64~4.08% 수준 지방은행은 연3.31~4%로 낮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통상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만큼 다소 이례적이다. 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주담대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지방은행들이 낮은 금리를 앞세워 우량대출인 주담대 유치에 나섰다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각 은행 고시에 따르면 3개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과 i뱅크(옛 대구은행)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3.31~4%(혼합형, 10년 이상 기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은행은 타 지방은행보다 다소 높은 연 4.8% 수준의 최저금리에 주담대를 공급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

/뉴시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이 공급하는 주담대의 최저금리는 연 3.65~4.33%를 기록했고,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의 주담대 최저금리도 연 3.64~4.08%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방은행보다 최저금리가 높았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불황장기화로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은행들이 낮은 금리를 앞세

워 담보가 확실한 '우량대출'인 주담대 끌어오기에 나섰다라고 관측했다.

반면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섰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금리를 각 2~6회 인상했고, 이달 말에도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이는 자금 조달 비용 감소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담대 수요가 늘자,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에 주담대 축소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가 가계 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한쪽으로 쏠린 상황에서는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도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은 작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규모가 전월보다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인터넷 은행·특수은행의 주담대 규모는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은행권 전체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5조 6000억원 증가한 882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7조 6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전체 증가폭보다 시중은행 주담대 증가폭이 더 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심사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은행권이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오는 9월 초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수도권 주담대에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주담대 '막차' 수요는 이달 말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실시하고,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예정치인 0.75% 포인트(p)보다 0.45% 높은 1.2%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약 2800만원(수도권 기준) 줄어들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女특화' 한화손보 상반기 실적 날개... 한화생명 은 제동

한화손보 순익 2547억... 26% ↑ 여성보험 호조, 신계약 매출 100억 한화생명 순익 6673억... 17% ↓ IBNR 적립기준변경 이슈에 발목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올 상반기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반기 최대 이익을 낸 한화손해보험과 달리 한화생명은 일회성 요인에 발목 잡혀 성장성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의 상반기 순이익은 254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이익을 썼다.

상반기 매출은 2조 93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장기 보장성 신계약 매출은 353억원으로 17.7% 늘었다. 보험계약마진(CSM)은 3조 9610억원으로 지난해 말 3조 9270억원 대비 344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36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늘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한화손보는 '여성 특화 보험사'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 6월 설립 1주년을 맞이한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펠테크연구소와 함께 여성특화 상품을 출시하면서 여성 보험시장을 선점하고 공략한 것이 빛을 봤다는 분석이다.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지속적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출시 8개월만인 지난 3월 신계약 매출 기준 100억원을 달성했다. 6월엔 유방암예후여측검사비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얻었고 7월부터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판매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한화손보는 여성특화 상품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성장뿐만 아니라 업계 선도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 보험시장에 뛰어든 후발주자들에 맞서 그

동안의 여성보험 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특화 보험사 선두주자로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펠테크연구소와 같이 여성에 대한 전문 연구를 바탕으로 타 보험사에 없는 신규 담보들을 선보이면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며 "차별화 전략을 통해 여성 보험 시장을 리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그룹 금융계열사의 '말형'으로 평가 받는 한화생명은 체면을 구겼다.

한화생명의 상반기 순이익은 66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별도 기준 34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8% 줄어든 성적표를 받았다.

투자손익은 3520억원에서 1590억원으로 54.8% 감소했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996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1640억원 대비 14.4% 줄어들었다.

한화생명은 올해 1분기 금융당국의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 기준 변경 여파로 일회성 요인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올 1분기 IBNR에 대한 일회성 부채 관련 이슈가 있어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채권을 매도하면서 일회성 투자이익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올해 이익이 적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은 누적 개념이므로 연말까지 일회성 요인의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화생명은 신계약 부문 성과에서 체면치레했다. 올 상반기 신계약 연납보험료(APE)에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조 9200억원을 기록했다. 보장성 APE 1조 5270억원으로 비중을 80%까지 확대했다. 일반보장 APE는 일반보장 라인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92.6% 성장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2050년 국민연금 추월 낮은 수익률 개선 필요

노후 소득원 '퇴직연금' 역할 대두

오는 2050년에는 퇴직연금이 적립금 규모에서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주요한 노후 소득원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입자 대다수가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있고, 연간 수익률도 2% 수준에 불과한 만큼 제도적 정비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DC형·DB형·개인형 IRP 합산, 운용 수익률 연 2% 가정)이 국민연금 연기금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오는 2050년이다. 예상 적립금 규모는 약 1200조원(완전적립금 모델 기준)에 달한다.

향후 연기금 소진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적립금 규모 증가에 따라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는 오는 2027년부터 보험료 수지(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금액에서 수급자가 받은 금액을 뺀 액수)가 적자로 전환한다. 이어 2040년에는 연기금 운용 수익률만으로는 보험료 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며, 2055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전부 소진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퇴직연금이 주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금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이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연 2% 수준에 불과한 낮은 수익률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미분양 이라더니... 대구, 신축 신고가 행진

힐스테이트범어, 국평 15.3억 거래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 2500만원 ↑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은 대구에서도 신축아파트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범어'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5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3개월만에 7000만원이 올랐다. 지난 6월에는 '수성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 전용면적 221㎡가 17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신규 분양한 '대구범어아이파크'의 경우 82가구 모집에 1256건의 청약이 접수, 1순위 경쟁률에서 15.32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성구 외 지역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 전용면적 84㎡은 지난 6월 5억 6500만원에 거래됐다. 종전 최고가인 지난해 8월 5억 4000만원과 비교하면 2500만원이 올랐다. 같은 지역 '남산자이하늘채'도 이달 동일면적이 6억 8500만원에 거래되며 2개월만에 1500만원 상승했다.



'대구범어아이파크'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부동산 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최근 대구 주택시장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저가매물을 찾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8월 대구 전망지수

는 전월 대비 23.6포인트 증가해 광역시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하락, 전주 대비 0.01%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에 하락 전환한 이후 40주 연속 내렸다.

권역별로는 남구(-0.22%)에서 대명·봉덕동 구축, 달서구(-0.19%)는 용산동 중소형 규모 및 월성동, 동구(-0.12%)는 신기·효목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 역시 79.2로 전주(79)보다 0.2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80선을 돌파하지 못한 모양새다. 매매수급지수란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뜻한다. /전지원 기자 jiw13@

엔비디아 'AI 거품론' 잠재우나 SK·삼성, HBM 공급수혜 기대

증권가, 2분기 '깜짝실적' 전망
호실적 달성시 韓기업 호재 작용
MS 부진으로 인한 우려 시각도

엔비디아의 상반기 실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분기 IT 업계를 뒤흔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무릎을 꿇을지, 아니면 거품론을 불사하고 다시 한 번 AI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오는 28일 현지시간 뉴욕 증시 마감 후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분기 실적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상치 컨센서스는 주당순이익(EPS) 0.64달러, 매출액 286억8000만달러(약 38조1157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 2025회계연도 1분기(2024년 2~4월) 실적 발표 당시 엔비디아 측에서 제시했던 2분기 매출액 가이드스 280억달러(약 37조2120억원)를 넘어선다.

이러한 전망은 전세계적인 AI 개발 붐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최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엔비디아의 GP

U 시장 점유율은 업계 추정 80% 이상인데, GPU 시장에서 가장 큰 주요 시장만을 따져봤을 때 이미 90% 수준에 육박한다.

특히 데이터센터용 GPU 부문에서의 엔비디아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테크인사이트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데이터센터용 GPU 출하량이 376만대로 2022년 264만대보다 40% 증가했는데, 해당 분야 시장 점유율 98%에 달한다. 이를 통한 매출은 362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배 늘었다.

산업계 외에서도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지난 4월 게임 플랫폼 스팀이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엔비디아의 제품이 전체의 76.59%에 달했다. 가장 많이 이용 중인 GPU 모델 또한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엔비디아의 제품이었다.

부정적 시각도 있다. AI 선도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난 2분기 실적은 AI 거품론을 지켰다. MS는 지난 2분기(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647억달러(약 89조원), 순이익은 220억달러(약 3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지난해 보다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5%, 순이익은 10% 늘었

다고 알렸다. 그러나 AI 운영의 핵심 부분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 사업 매출 성장률이 29%에 그쳤고 AI 서비스 성장률은 8%p로 나타나 큰 성장을 거두지 못했다.

MS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은 곧 AI 거품론과 함께 기업들의 AI 개발 비용의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다른 아세모글루 MIT 교수는 "AI가 전체 작업의 5% 미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AI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개발 비용이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개발 비용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AI 개발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앞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MS 등 M7(애플·MS·알파벳·아마존·테슬라·엔비디아·메타)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혀 AI 거품론과 개발 비용 축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의 2분기 호실적은 곧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특히 GPU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을 공급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프 순수전기차 '어벤저' 상륙

'2023 유럽 올해의 차' 수상
제리칸 등 지프 아이덴티티 계승



지프 첫 순수전기차 '어벤저'.

아메리칸 프리미엄 브랜드 지프의 첫 순수 전기차 '어벤저(Avenger)'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어벤저는 지프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BEV)로 지난 2022년 말 유럽에 가장 먼저 선보이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다. 특히 브랜드 최초로 '2023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고, 같은 해 '세계 여성 자동차 기자가 뽑은 2023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패밀리 SUV'로도 선정되며 이름을 톡톡히 알렸다.

소형 B 세그먼트 경쟁이 치열한 유럽 시장에서 출시 1년 6개월여 만에 10만대 계약을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는 어벤저의 매력을 알아봤다.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높고 까다로운 유럽 고객에게 먼저 검증받은 모델답게 전문가들은 전동화 움직임 속에서도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잘 계승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어벤저는 전기차 모터가 즉각적으로 발휘하는 최대 파워를 기반으로, 지프만의 셀렉-터레인 지형 설정 시스템을 갖춰 예코·일반·스포츠 모드는 물론 샌드·머드·스노우 등 다양한 주행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전천후 성능을 지원한다. 여기에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HDC)까지 기본 탑재돼 저속 영역에서는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하다. 아울러 200mm의 지상고와 615mm의 시트 높이는 소형 차체임에도 SUV에 걸맞은 주행 포지션을 선사해 정체된 도로에

서는 물론 좁은 골목 주행 시에도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디자인과 동급 대비 최상의 기술력이 적용된 실용적인 차량이라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벤저는 지프의 기존 엔트리 모델인 '레니게이드' 보다도 콤팩트한 차체를 자랑하면서 박시 스타일 실루엣과 각진 세븐-슬롯 그릴, LED 테일 램프에 적용된 X자 '제리칸(후대용 연료통)' 디자인 디테일 등으로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했다. 트렁크 공간 또한 321L로 동급 최고 수준이다.

톡톡 튀는 지프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프의 막내 어벤저는 오는 8월 말 미디어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팬들에게 첫 인사를 건넨 뒤, 내달 4일 국내 고객들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국내 판매 가격은 론치뷰드 트림이 5290만원, 알티튜드 트림이 56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대전력망 기술회의(CIGRE)에서 방문객들이 LS전선·LS일렉트릭의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LS전선



효성중공업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효성의 차세대 전력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효성

K-전력기기업체, 유럽서 미래전력 솔루션 뽐낸다

CIGRE 파리세션 2024

LS전선·LS일렉트릭

IDC용 초전도 솔루션 전시
효성 저탄소 전력기기 소개

국내 전력기기업체들이 AI 및 신재생 발전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유럽에서 미래 전력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최대 전력망 박람회인 'CIGRE(시그레, 국제전력망협의회) 파리 세션 2024'가 개최된다.

LS전선과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과 초전도 전류제한기로 구성된 IDC용 초전도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IDC는 AI 산업의 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변전소 신설이 주민 수용성과 사업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전도 솔루션은 변전소 설

비도 22.9kV(킬로볼트)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 대용량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또한 LS전선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LS일렉트릭은 변전소용 친환경개폐장치 등 전력망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다.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의 HVDC 해저케이블과 LS일렉트릭의 변전 설비는 전세계 Top 수준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양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력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변압기, 차단기, ESS(에너지저장장치), STATCOM(정지형무효전력보상장치), HVDC(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 등 회사가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전력기기 및 시스템 솔루션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인

GIS,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성을 높이는 ESS와 미래 송전망 건설의 핵심 기술인 HVDC를 전면에 내세워 '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유럽 고객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전시회 기간 중 'Future Grid Insight Forum'이라는 글로벌 주요 고객 대상 기술 포럼을 개최한다. AI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 디지털 변전소, 탄소중립 등의 주제 발표와 효성중공업 유럽 R&D센터의 SF6-Free GIS(저탄소 전력기기)가 소개될 예정이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효성중공업이 탄소저감·고효율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온 만큼, 미래 전력시장에서도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V2X모듈' 국제표준 인증

글로벌 전장시장 경쟁력 확보 기대

LG전자 차량·사물간 통신 'V2X' 모듈이 세계 최초로 보안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획득했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차량에서 외부 메시지를 안전하게 송수신하는 '메시지 보호'와 외부에서 특정 차량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량 제어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하는 '접근 제어' 등 주요보안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V2X는 자동차가 도로에 있는 다양한 사물과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이다. 주변 교통 상황과 차량의 접근 등을 알려주는 'V2V',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소통하는 'V2I', 보행자 정보를 확인하는 'V2P' 등으로 구성된다.

LG전자는 이번 CC 인증 획득을 통해 완성차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글로벌 전장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삼성전자, 비스포크 가전 '빅스비' 적용

(AI 음성비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가전'에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가 적용된다. 자연어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음성 명령으로 가전을 더욱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된 비스포크 AI 제품 라인을 중심으로 신규 빅스비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 문장에 여러가지 명령을 담아 말해도 가전제품이 각 의도

를 이해할 수 있고 ▲앞의 대화를 기억해 다음 명령까지 연결해 수행할 수 있으며 ▲기기 관련 궁금증과 답변을 말로 묻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빅스비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제품은 올해 출시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비스포크 AI 무풍 갤러리 에어컨이며, 적용제품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AI부터 클린테크까지’… LG, 미래 성장동력 발굴 가속화

문화·혁신·예술 축제 ‘스파크’
8개 계열사 R&D 신기술 등 공유
60여개 전시 부스, 6개 분야 다뤄
DX페어·슈퍼스타트 데이 등 잇따라

LG그룹의 연구·개발(R&D) 인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계열사 간 기술을 교류하고 차세대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LG는 3주간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구성원, 외부 파트너사, 스타트업,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문화·혁신·예술 축제 ‘LG 스파크 2024’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LG 테크페어’는 26일부터 이틀간 8개 계열사의 R&D 신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전문가와 난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다.

LG는 총 60여개 전시 부스를 마련해 그룹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바이오(B), 클린테크(C) 분야 이외에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모빌리티, 소재·부품까지 6개 영역을 다룬다.

이 자리에서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로 집안 사물 인터넷(IoT) 기기 간 연결성을 강화한 ‘AI 허브’ ▲탄소를 전환공정 없이 원재료로 직접 활용하는 친환경 신소재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 안전성과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가 2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스파크(SPARK) 행사의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LG SPARK 2024.

/LG

증상 완화 효능을 크게 높인 치료제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업을 모색한다.

미래 ‘게임 체인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융복합 R&D 워크숍도 연다. 계열사 연구위원급 전문가들이 참여해 ‘물 없는 친환경 세탁기’ ‘당뇨와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채혈 없는 혈당측정 기술’ 등 R&D 난제를 심층 논의한다.

LG 그룹의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이 모이는 ‘이노베이션 카운실’ 이외에 연구위원급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A·B·C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미래기술 세미나 세션도 마련했다. 김상배 MIT 교수, 이상엽 KAIST 부총장, 강기석 서울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LG 테크페어 이후에는 ▲계열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과를 공유하는 ‘DX페어’(29~30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슈퍼스타트 데이’(9월 4~5일) ▲그룹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교류하는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9일~10일) ▲LG 구성원 가족, 산학인재, 마곡 지역주민과 소

상공인이 소통하는 ‘컬처워크’(11~13일)가 열린다.

DX페어에서는 계열사의 32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 성과를 전시하고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배경훈 LG AI연구팀장이 임직원 대상으로 생생한 AI ‘챗역사원’을 소개한다.

이진규 LG에너지솔루션 전무, 권도혁 LG생활건강 전무 등 계열사 CDO(최고디지털책임자)는 ‘DX를 활용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특강에 나선다.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에

서는 AI·빅데이터, 모빌리티·자동차, 플랫폼·아키텍처 등 8개 분야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유한다. MS, IBM, 퀄컴, 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발자들이 참여한다.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사장은 “LG 스파크를 지속 확대해 계열사간 융복합 연구개발 시너지를 내고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LG사이언스파크만의 차원이 다른 혁신 문화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HD한국조선해양, 수소연료전지 시장 본격 진출

글로벌 리딩기업 ‘컨비온’ 인수
차세대 청정에너지 등 기술 확보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수전해 강화

HD한국조선해양이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HD현대의 조선·해양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HD하이드로젠이 최근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 글로벌 리딩기업인 ‘컨비온’을 약 7200만유로(1065억원)에 인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컨비온’은 2012년 설립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및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SOEC) 전문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상업용 SOFC 발전 시스템 기술 및 공급실적을 보유한 회사다.



SOFC와 SOEC 기술은 미래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수소에너지의 핵심기술로서 고온에서 작동하는 특성상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고 개발기간도 장시간 소요돼 핵심기술 확보시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D하이드로젠이 연료전지 사업을 총

글로벌 시장 전망도 밝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시장은 육상 발전을 중심으로 매년 평균 30%씩 성장, 2023년 2.5조 원에서 2030년 1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사용이 본격화되고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HD하이드로젠이 연료전지 사업을 총

괄하는 가운데 국내 발전용과 선박용 사업을 담당하고 컨비온이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유럽 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400억원을 출자, HD하이드로젠을 설립한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기술뿐만 아니라 소형원자로(SMR) 등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청정에너지 기술로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제철-세아제강

탄소저감 후관 공동평가
탄소 배출 12% 감소 효과

현대제철이 해상풍력용 탄소저감 후관 개발에 한창이다. 현대제철은 세아제강과 협업을 통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용 탄소저감 후관 및 강관 구조물을 제작, 평가하고 해당 소재의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탄소저감 후관은 탄소량을 줄이는 공법을 적용해 생산하는 제품이다.

현대제철이 국내 최초로 ‘전기·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한 항복강도 355MPa(메가파스칼)급 해상풍력용 후관을, 국내 강관업계 선두주자인 세아제강이 강관으로 가공해 조관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고로재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갖춰 합격 판정을 받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SKT, 패스키 인증으로 비번없는 시대 앞장

서비스형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제공
생체·핀번호 인증 등 간편 로그인

SK텔레콤은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인증 가능한 패스키 인증시스템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반으로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패스키는 비밀번호 대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인증 및 로그인을 가능케 하는 글로벌 표준(W3C, Fido Alliance) 기술 개인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외출 필요 없이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인증방식(생체 인증, 핀 번호 등)을 통해 간편하

게 로그인 가능하다.

구글·애플·MS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패스키 인증을 각사 운영체제(OS)의 기본 인증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도 자사 서비스에 패스키를 도입하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패스키 인증시스템을 직접 개발, 본인확인 서비스 앱인 패스(PASS)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패스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패스키 인증시스템을 SaaS형태로 준비해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BAC 위원 선임

글로벌 경험 바탕, 민간외교 앞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풍부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한다. 26일 HS효성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신규위원’에 임명됐다.

ABA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활동 과정에서 정상과의 대화 등에 참여하여 각국 정상들에게 민간기업 부문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6년 APEC

필리핀 정상회의시 설립된 자문기구다. ABAC 한국위원은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부회장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이사와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과거 한일경제협회, 한일포럼, 한미재계회의,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등 국내외 대표적인 경제교류단체를 이끌며 경제외교 확대에 힘쓴 아버지인 고석재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차현정 기자

KT, ‘파트너사 상생’ 납품대금 조기 지급

KT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파트너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KT커머스, KTDS, KT엔지니어링, 브이피 등 그룹사와 함께 총 107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KT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파트너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의 중심, HUFS가 있다 세계와 우리, HUFS가 있다



70년을 넘어 100년까지
학생이 성공하는
HUFS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4. 9. 10.(화) 10:00 ~ 9. 13.(금) 17:00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증권가 “금투세 폐지·도입 여부 미룰수록 비용만 늘어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에도 금투세, 본회의 심의에 못올라
증권가, 청원 통한 유예 기대 안 해
내년 1월 시행 대비 시스템 구축 중



한국투자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행 4개월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뒀음에도 본회의 심의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적 열망 속에도 정치권의 공방만 치열할 뿐이고, 증권사 내 전산 시스템 비용만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 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금투세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청원은 총 5건이다. 5건의 금투세 폐지를 요청한 청원은 17만6618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이중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을 넘긴 청원은 2건으로 청원 결과 13만4633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앞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2022년 10월 당시 청원은, 동의 기간 내(30일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금투세 관련 첫 청원으로 ‘본회의불부’로 붙여져 금투세 유예를 이끌어 냈다. 이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기대가 큰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4~5월 이뤄진 금투세 폐지 청원은 21대 국회 종료로 임기만료

폐기됐고, 다시 같은 주제로 5~6월 진행된 청원도 위원회심사까지는 이르렀으나 국회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5일 종료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성립은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

는 대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월초 “사모펀드는 환대에 따른 이익을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한다”며 “금투세가 강화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대 27.5%로 줄어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금투세 시행 시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세율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간에 떠도는 ‘조부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는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는 지난번과 같이 청원을 통한 유예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투세 폐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에 비용을 들이고 있다. 실령 금투세가 폐지돼도 지금껏 구축한 시스템 관련 비용은 회수할 수 없고, 시행한

다면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자기자본 20대 증권사의 전산 운용비는 총 35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금투세 폐지·도입 여부를 미룰수록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투세를 견으려면 원천징수를 위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데 대형증권사는 신속하게 이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형증권사는 부담이 더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완화를 언급한 ‘이재명 2기 체제’를 지켜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투자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라면서 “만약에 투자자들의 기대처럼 폐지되면 매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K-화장품 수출액, 10년 내 전세계 1위권으로 이끌 것”

장외CEO 인터뷰

최인석 레페리의장
IPO 도전에 “일종의 국가대표 되는 것”
크리에이터 문화콘텐츠 IP 중심
‘뷰티테일 밸류체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그룹 레페리의 최인석 의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레페리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수백여명의 뷰티 크리에이터, 약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들과대한민국뷰티 문화를 이끄는 존재로서 레페리가 가장 눈에 띄는 ‘K-뷰티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10년 내 프랑스를 제치고 1위. 금메달을 따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 국가대표 기업이 되겠다.”

글로벌 뷰티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그룹 레페리가 신한투자증권과 상장 주관 계약을 체결하면서 코스닥 상장 도전을 알렸다. 레페리는 꾸준한 외형 성장을 통해 탄탄한 수익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뷰티 기업이다. 기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와 더불어 화장품 유통 플랫폼 사업까지 분야를 확장시키면서 기

해당 기업에 대한 일종의 국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일종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자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기에 기업공개(IPO)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레페리는 상장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 의장이 꼽은 레페리의 강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함과 동시에 남다른 ‘경쟁력’과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레페리는 독자적인 크리에이터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중심으로 뷰티 마케팅과 생산, 유통 등을 총괄하며 ‘뷰티테일 밸류체인’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2013년에 설립된 레페리는 400여명의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기업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359억원, 영업이익이 50억7000만원을 달성하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각각 전

년 동기 대비 47%, 384%씩 증가한 수치다.

◆ 지금은 ‘K-뷰티 웨이브’… ‘뷰티테일 밸류체인’ 통해 뷰티 문화 선도할 것

최 의장은 지금을 한국 뷰티 산업의 호황기인 ‘K-뷰티 웨이브’라고 명명했다. 다만 그는 “국내 중소 뷰티 브랜드들이 제품 품질 향상과 제품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성과”라면서도 “국내 화장품의 품질은 좋아지는데도 제품 가격은 오히려 할인 경쟁으로 인해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수요에 단순 공급형 수출로 대응하는 방식은 국내 뷰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부연이다. 선진적 뷰티 문화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부터 리테일(유통), 콘텐츠를 통한 마케팅까지 모두 아우르는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장은 “K-뷰티가 진정한 고급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차별화된 산업 포지셔닝

에 힘써 발돋움해야만 하는데, 이를 레페리가 해내고자 한다”며 “뷰티테일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을 5년 내 전 세계 2위권, 10년 내 전 세계 1위권 산업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티테일 밸류체인’이란 뷰티 문화를 주도하는 크리에이터 육성부터 온오프라인 마케팅 솔루션, 소셜미디어 기반 커머스 및 라이브 커머스, 뷰티 제품 제조 및 유통까지 포함하는 레페리의 통합 비즈니스 모델이다.

아울러 ‘뷰티 쇼퍼테인먼트(쇼핑+엔터테인먼트)’를 구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의장은 “최근 아시아태평양(APAC) 쇼퍼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레페리는 뷰티테일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뷰티 쇼퍼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현재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PAC 쇼퍼테인먼트 시장은 연평균 26%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레페리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된다면 국내 최초 글로벌 뷰티 쇼퍼테인먼트 상장 기업이 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키움증권, 해외투자자 대상 절세계좌 이벤트

ETF 거래수수료 우대·상품권 지급

키움증권은 해외투자자들 대상으로 다양한 절세 계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를 1년 동안 우대하고,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9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사 연계 이

벤트를 통해 최대 4천 스타벅스 커피와 최대 12만원까지 문화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을 연금저축계좌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투자하면 이자, 배당 등의 세금을 아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매년 최대 연말정산을 통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

장인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세액 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정부의 납입 한도 및 비교세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세계개편안 발표에 따라 중개형ISA계좌의 인기 또한 높아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중개형ISA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500만원 이상 순증 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현금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증권, ELS 온라인 전용브랜드 출시

‘TRUE ON ELS’… 상품접근성 개선

한국투자증권은 추가연계증권(ELS) 온라인 전용 브랜드 ‘TRUE ON ELS(트루온 ELS)’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RUE ON ELS’ 브랜드 출시와 함께 최소청약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고, 청약 기간도 2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등 상품 접근성도 크게 개선했다. 온라인 전용 상품에 걸맞게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모

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다.

TRUE ON ELS 5회는 LG화학과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셰어프론 스태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 단위로 상환 여부를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6, 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0%(만기) 이상이면 연 12.2%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허정윤 기자

“K 게임, 세계진출 위해 배경지역 역사·신화 먼저 연구를”

게임과학연구원-디그라한국학회
‘디그라 게임과학 클래스’ 개최
국내외 게임관련 연구동향 소개

한국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전 지역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인 연구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스페인 게임 연구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게임이지만, 각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임과학연구원은 디그라한국학회와 함께 26일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 11층 콘퍼런스룸에서 국내 최초 ‘디그라 게임과학 클래스’를 열고 국내외 게임 관련 연구 동향 소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태진 디그라한국학회장, 빅터 나바로 리메살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대학 교수, 같은 대학의 베아트리스 페레스 자파타 박사가 참석했다.



26일 서울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 11층에서 열린 ‘디그라 게임과학 클래스’에서 윤태진 디그라 한국학회장(왼쪽부터), 빅터 나바로 리메살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수, 베아트리스 페레스 자파타 박사가 참여해 강연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국가별 시리즈로 진행되는 ‘디그라 게임과학 클래스’는 게임 과학을 주제로 한 대중 강연 행사다. 세계 게임 연구자들의 게임과학 연구를 정기적으로 국내에 소개하고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대중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먼저 윤태진 디그라한국학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게임 산업의 국제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태진 한국학회장은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제적인 교류”라며 “게임 학과, 대학원 등 어떤 형식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게임을 좋아하는 수많은 비평

가들, 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연에는 스페인 게임 과학연구원들이 나섰다. 가장 먼저 빅터 나바로 리메살 스페인 폼페우 파브라대학 교수가 게임 콘텐츠 내 신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같은 대학 소속인 베아트리스 페레스 자파타 박사가 게임 속에서 다루어지는 트라우마의 형성 과정 연구를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빅터 나바로 리메살 교수는 게임 콘텐츠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리메살 교수는 “게임 내 콘텐츠의 대부분은 신화를 통해 형성된다. 신화는 과거의 특정한 이야기가 아닌,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게임 연구 선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리메살 교수는 “게임은 국제적인, 하나의 문화지만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보통 게임은 북미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등 미국에 많이 집중돼 있다”며 “그러나 각 지역의 고유한 신화, 역사적 맥락은 다르다. 게임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그 지역의 신화나 역사 자체를 먼저 연구한 곳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임 콘텐츠에서 표현되는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두 번째로 강연을 맡은 베아트리스 페레스 자파타 박사는 “트라우마가 대중문화의 상업적인 요소로 활용된다”며 “보통 게임 내에서 표현되는 트라우마는 개인적이고, 서구적이며, 과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 내에 녹아든 트라우마 내용 역시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인 문맥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중기부, 싱가포르서 2.7억 弗 펀드 조성

K-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韓 기업에 1670만 弗 의무적 투자
스타트업 아세안 진출 확대 기대감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는 투자회사들이 한국 스타트업 등에 167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싱가포르의 방위·우주항공 글로벌 기업 탈레스는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부터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후 싱가포르에 있는 콘래드 오차드 호텔에서 ‘K-Innovation Day in Singapore’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투자사 파빌리온(Pavilion Capital), 벡텍스(Vertex), OCBC 등 현지 거점 대형 투자

사 80개와 탈레스, 오라클, 다쏘시스템 등 글로벌 기업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52개사 관계자 등 총 3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박2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싱가포르 거점 3개 투자사인 K3 벤처스(1억 2000만 달러), Lion X 벤처스(1억 달러), Qualgro 파트너스(5000만 달러)와 현장에서 투자결성식을 갖고 총 2억7000만 달러(한화 약 378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1670만 달러(약 230억원) 이상을 스타트업 등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27년까지 아세안 지역 글로벌펀드를 현재보다 10억 달러 이상 더 확대해 우리 스타트업에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 한국 벤

처·스타트업의 글로벌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의 탈레스는 중기부의 대표 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내년부터 참여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프로그램 기존 참여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 다쏘시스템은 ‘정글’, ‘다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 창업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스마트팜 등 딥 테크(Deep Tech) 중심으로 엄선한 한국 11개 스타트업이 참가해 발표하는 ‘K-Global Star IR’도 현지에서 펼쳐졌다.

IR 행사에 앞서선 싱가포르 거점 글로벌 투자사 3곳이 국내 스타트업 3개사에 총 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싱가포르 콘래드 싱가포르 오차드에서 열린 ‘K-Innovation Day in Singapore’ 1부 행사에서 ‘창업진흥원-글로벌 기업 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 업무협약(MOU)’ 체결에 임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하는 계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싱가포르 투자사인 CENTO가 크레파스솔루션에 100만 달러(14억원), 말레이시아 투자사 RHL가 퍼밋에 220만 달러(30억원), 싱가포르 투자사 Altara가 하이퍼라운지에 74만 달러(10억원) 투자를 각각 결정했다.

이외에 ‘K-스타트업 밋업’에선 KS C 싱가포르 입주 기업 등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K-스타트업 37개사가 현지 투자자 및 전문가들과 1대1 만남의 자리도 가졌다.

밋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업템포글로벌과 맵시는 현장에서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 장관은 “한국 스타트업의 뛰어난 기술력에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중기부는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에 앞장서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아세안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얼음정수기 AIS 3.0’ 104개 정수성능 인증

코웨이, 기술력 인정... 신뢰 쌓아

코웨이가 국내 얼음정수기 제품 중 가장 많은 정수 성능 인증을 확보,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코웨이는 또 정수기 사업 초기부터 제품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인 필터 기술력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정수기 필터 연구개발과 주요 필터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6일 코웨이에 따르면 얼음정수기 AIS 3.0은 국내외 공인 기관으로부터 총 104개 항목의 정수 성능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국내 얼음 정수기 중 최다 인증

으로 ▲국내 KC인증 47개 항목 ▲정수기 국제 인증기관 미국수질협회 WQA (Water Quality Association) 인증 79개 항목 등 바이러스, 박테리아부터 환경호르몬까지 다양한 유해물질에 제거 성능을 인정받았다.

코웨이 아이온 얼음정수기 역시 국내외 인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등 총 97종에 달하는 항목의 인증을 획득해 뛰어난 성능을 검증받았다.

코웨이는 해외 인증 획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을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코웨이 AIS(아이스) 3.0 정수기.

지난 2008년 업계 최초로 정수기 국제 인증 기관인 미국 WQA로부터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다.

WQA에선 정수기 성능은 물론이고 물이 닿는 모든 부품에서 약 200가지의 유해·독성물질 불검출에 대한 안전성과 제품의 구조적 완성성 시험까지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 ‘골드실(Gold Seal)’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어촌 빈집에 5억 투입, 복지시설 만든다

대중기협력재단, 빈집 재생사업

어촌에 있는 빈집들이 귀어인,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시설로 탈바꿈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7일 충북 오송 H호텔에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완도군, 남해군과 함께 ‘민관 협력 어촌 빈집재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처음으로 어촌의 빈집을 재활용해 예비 귀어인의 숙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주택 등 어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이다.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본격 구축했다.

사업대상지는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생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완도군에서는 연말부터 소안면 일대 빈집 3채를 리모델링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하우스와 출향민·예비 귀어인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조성한다.

남해군에선 설천면과 고현면 일대의 빈집 3채를 활용해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 교육 및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위협 시 신고 없이도 직권 심의로 대응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국가안보 위협 최소화 전략 방안
외투 안보심의 기간 등 대폭 조정

앞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미신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의 직권 심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 국가첨단과학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투자자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조정했다.

또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안전보건공단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수도권 등 지역 확대

안전보건공단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과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라이더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라이더 안전교육’은 기존 수도권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해 광주·대구·부산 지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을 주제로 이론교육과 가상현실(VR) 체험을 병행해 실감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은 교통사고 처리 방법, 안전배달 노하우 및 이륜차 점검·정비 기본 등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라이더 안전교육’ 이외에도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40여종의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는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이륜차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공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교육생들이 안전보건공단의 가상현실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장’의 모습. /뉴시스

내달 농가 77곳에 ICT 장비 등 스마트축산 패키지 모델 보급

농식품부, 축산 운영 솔루션 지원
경영비 절감 등 농가 문제 해소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을 포함한 스마트축산 모델을 전국 77개 농가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 약취·탄소 저감, 동물복지, 방역강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문제 해소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 및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주요 축산작업을 원격·정밀 제어하는 데 필요한 ICT 장비 세트와 운영 솔루션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24년 보급 패키지 모델은 총 21개이다.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 양돈 4개, 양계 6개 등이다.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약취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이다.

축종별 우수평가를 받은 모델은 ▲개체별 생체정보 수집기(목걸이형 웨어러블)를 활용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가 기대되는 ‘송아지 건강·생육관리 솔루션(한우)’ ▲젖소에 특화된 축사환경 및 사양관리를 지원해 일 평균 착유량

15% 증가가 기대되는 ‘젖소 착유량 향상 솔루션(낙농)’ ▲입체(3D) 체형 스캐너와 임신·모돈 작동 급이기 등을 연계 운영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전망되는 ‘모돈·임신돈 최적관리 솔루션(양돈)’ ▲가금류에 적합한 환경 제어 장치와 사료빈 관리기, 육계 통합 운영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이 예상되는 ‘육계 생산성 향상 솔루션(양계)’ 등이다.

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엄선했다. ▲축종 ▲사육규모 ▲축사 현대화 여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대상 농가 77곳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패키지 우수모델이 신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예산 지원 등 협업을 강화해, 도입에 따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옥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패키지 모델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축적된 축산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등 전반적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 전문가를 활용해 현장 밀착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올해 최고 김치에 ‘미금치 울무총각김치’

농식품부, ‘대한민국 김치품평회’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취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울무총각김치’ 등 8개 김치 제품을 올해의 수상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김치품평회’는 매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 이를 통해 김치 품질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상을 차지한 ‘취임진강김치의 ‘미금치 울무총각김치’는 황태가루와 멸치가루를 활용한 육수에 울무가루를 혼합해 감칠맛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취우영채널의 ‘대북포기김치’ 우수상은 ▲취청원오가니의 ‘포기김치(골드)’ ▲참식품주식회사의 ‘전주반방총각김치’ ▲농업회사법인 솜씨가(취)의 ‘솜씨가’ 장려상에는 ▲한복심남도손김치의 ‘한복심 알타리김치’ ▲농업회사법인 취제이애플드의 ‘진미네명품김치’ ▲취임진강김치의 ‘미금



미금치 울무 총각김치.

/뉴시스

치 울무포기김치’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업체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에는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우수상에는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장려상에는 유통공사 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22일 ‘제5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농식품부는 수상 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 출품, 온라인 마켓 입점, 할인기회 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제5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고객참여 부하 차단제로 650MW 확보”

감축실적 용량 따라 보상금 지급

전력계통 고장 시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에 제지업종 등 44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4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과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란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는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은 특히 제지 업종이 약 82%를 차지하는 등 제지·철강·2차전지 등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제도 가입

률이 높았다.

가입 대상은 154킬로볼트(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제도 가입 유인책으로 작용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전력 차단시 보상은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kW-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 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kW-1회)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5개국 고용노동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등 14명 방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10일간 라오스, 동티모르, 요르단, 케냐, 도미니카 공화국 등 5개국 14명의 고용노동 담당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역량 강화’를 주제로 코이카(KOICA) 글로벌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5개국 고용노동분야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강의,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5개 국가의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구체적인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고용노동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한국과 해외 주요 국가의 성차별 시정과 여성 대표성 제고 사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제도 ▲모성보호·육아 지원 정책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제도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 안내 등이다.

5개국 공무원들은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앙내일센터를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의 정보기술(IT) 분야 재취업 지원 등 여성 재취업을 위한 현장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봤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 지도에 대해 학습했다.

/김대환 기자 kdh@



2025 송실대학교 수시모집



- 원서접수 : 09.10(화) ~ 13(금) • SSU미래인재전형 면접 : 11.29(금)
- 논술고사 : 11.16(토) • 기회균형, 정보보호특기자, SW우수자, 특수교육대상자 면접 : 11.30(토)

※ 전형 관련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su.ac.kr) 참고

서울시, 한강-도심 단절 극복 나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검토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구성
간선도로 기능 저하로 연계방안 추진
일반도로 전환·상부 공간 활용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한다. 간선도로로 단절된 한강 수변 공간의 연결성을 회복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미래 교통량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내달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해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강변북로(가양대교~천호대교 26.7km)와 올림픽대로(행주대교~구리암사대교 36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장거리 고속통행 위한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는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돼 한강변과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는 연계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용역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한강 주변 주요 개발 계획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올림픽대로 뚝개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사업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 ▲반포·잠실·압구정 지역 대규모 정비사업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등을 고려 중이다.

시는 본 용역을 통해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대한 재구조화안을 마련하고 일반도로 전환과 상부 공간 활용 방안을 살필 예정이다.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 교량 진출입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략적인 사업비와 자원 투입 방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사업 우선순위도 도출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수도권 동서축의 차량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신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포함된 교량 구간의 시설물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한강 조망 및 도시경관 개선안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전남도, '전라남특별자치도'로 명칭수정 요청

'전남특별자치도', 정체성 못 담아

전남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명칭이 1000년 전라도 정체성을 오롯이 담아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로 명칭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결과에 주목된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 외 의원 17명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난 6월11일 공동 발의해 현재 소관 위원회 접수를 거쳐 심사 단계에 있다.

이후 진행 절차는 체계지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별법 발의 이후 각 시·군 지자체는 전남이 처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전라남도(全羅南道)'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지역의 정체성을 잃게



전남도는 지난 2018년 1월 14일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두고 도를 대표할 천년나무로 해남 대흥사 소재 '느티나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된다는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도 명칭은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앞 글자를 차용해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8년은 전라도 정명(定名) 1000년이 되는 해였을 만큼 그 뿌리가 깊고 상징성 또한 크다.

이에 전주시와 함께 전라도의 양대 축인 나주를 대표해 윤병태 나주시장은 특별법 명칭 변경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용인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예타성조사 통과

고속도로 건설, 지방도 318호선 연결
반도체 중심도시 위한 인프라 확보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 핵심 중 하나

용인특례시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기흥~서울양재)사업이 전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시의 중점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기흥~고매~이동~서리 간 지방도 318호선 사업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용인이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이용량이



경부고속도로와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예정지 전경 /용인시

폭주하는 경부고속도로 밑에 왕복 4~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은 반도체 고속도로축(L1)과 두 개의 반도체 내륙도로축(L2, L3)으로 구성되는데, L1축은 경부지하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

용인남사·이동~안성 일죽)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시는 경부지하고속도로 기흥IC가 있는 기흥구 고매동에서 이동읍 서리로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을 건설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화성캠퍼스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 사업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6~30)'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특히 용인에 자리잡은 반도체 앵커기업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설계) 기업들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인적·물적자원 이동시간을 단축할 경부지하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의 대폭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153만 소상공인 출산·양육지원 업무협약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시장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올 10월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 휴업 기간중의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중세트' 정책을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서울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민과 공유

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도서관, 수영장 등 공간 활용도 높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수영장 등 공간을 인근 지역주민과 공유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학생과 지역민의 시설 이용 시간을 달리하고 출입 시스템을 정비해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과 지역시설을 공유해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Two-Block School)' 운영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공유학교 모델은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중심으로 학교블록(School Block)과 커뮤니티블록(Community Block)으로 구분된다.

두 개의 블록은 학교용지와 지자체부

지를 기준으로 ▲학교안의 학교블록(색선1) ▲커뮤니티 블록(색선2) ▲학교 밖 커뮤니티블록(색선3)으로 나뉜다.

색선1은 온전히 학교 교육만을 위해 학교장이 관리·운영하는 학교블록으로, 온전히 학교교육만을 위한 학교 전용 공간이다.

색선2, 색선3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며 자치단체장이 관리·운영하게 된다. 색선2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공용 공간(학교용지)이며, 지자체 부지인 색선3은 지역사회 전용이지만, 학교와 공유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교내 도서관과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등이 커뮤니티블록에 해당하고, 학교 운동장과 식당 등도 '학교 안 블록'이 아닌 '커뮤니티 블록'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밖 커뮤니티블록'은 지자체 공영주차장이나 어린이집, 어린이 돌봄센터 등이다. /이현진 기자 ihj@

서울시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요구

온라인 민원창구 '시장에게 바란다'
송파구 신천동, 신통기획 제외 요청

서울시민들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민원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송파구 신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접수됐다.

장미종합상가 소유자라고 밝힌 A씨는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신속통합기획 지구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처럼 신통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아파트 용도가 아닌 상가는 해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를 포함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예정지 10곳을 내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바 있다.

시는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사업 예정지로 주관 부서의 요청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신통기획(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개발 사업(절차)이 진행 중이어서 아파트 용도 외 상가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단기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정상화에 힘써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인 B씨는 "북아현 2구역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관리처분 승인 직전에 서대문구청과 조합 간에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합원 1+1 분양 관련 갈등은 서울시(서대문구), 조합, 조합원이 소통과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상담하는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코디네이터는 ▲도시계획·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김현정 기자

석촌호수에 16m '랍스터 킹' 뜬다 필립 콜버트 '긍정 메시지'도 전달

롯데월드몰 개장 10주년 기념 내달 6일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잔디광장서 랍스터별론 5점 전시



롯데월드몰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공공미술 프로젝트 '랍스터 원더랜드'를 진행한다. /롯데월드몰

롯데월드몰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송파구청과 함께 내달 6일부터 29일까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랍스터 원더랜드'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10월 개장 이래 10년간 롯데월드몰을 사랑해준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했다.

'차세대 앤디 워홀'로 알려진 필립 콜버트는 '랍스터'를 페르소나로 삼아 유쾌하고 재치 있는 작품을 창조하는 아티스트다. 오는 9월 필립 콜버트의 랍스터가 롯데월드몰 10주년 기념 행사를 주최하는 호스트가 되어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몰은 필립 콜버트의 상상력 넘치는 작품들로 채워져

동화 같은 분위기의 '랍스터 원더랜드'로 변신한다. 행사 기간 석촌호수 동호에 약 16m 높이 대형 랍스터 별론 '플로팅 랍스터 킹'을 띄운다. 필립 콜버트의 작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야외 잔디광장 월드컵에는 마르셀 뒤샹의 '샘'을 재해석한 약 12m 높이 랍스터 별론과 문어를 뒤집어쓴 랍스터 모양의 약 7m 높이 별론을 설치한다. 또한 '랍스터 스텝 캔', '랍스터 수프 캔' 등 필립 콜버트의 작품 다섯 점도 함께 전시된다.

롯데월드몰 2층 베스트 뮤지엄에서는 내달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필립 콜버트의 전시가 진행된다.

롯데월드타워-몰 안에서도 랍스터 포토존 8곳을 만날 수 있다. 9월 6일부터 29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타워-몰 곳곳에 숨겨진 포토존을 찾아 이벤트에 참여하고 월드컵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롯데월드몰 3층 세트, 친환경 텀블러 등 필립 콜버트 굿즈를 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몰 1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행사 기간 내 월드컵에서 매주 토요일 17시부터 40분간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9월 20일부터 29일까지는 롯데월드몰 5, 6층 식당가에서 '백 투 2014' 이벤트를 진행한다. 치즈룸&테이스팅룸, 피에프장, 서래냉면 등 롯데월드몰이 문을 연 2014년부터 함께한 매장서 인기 메뉴를 10년 전 가격으로 선착순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맥심플랜트서 모카골드 메뉴 만나요"

동서식품, 모카골드 킷셋 등 5종 선배

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에서 맛볼 수 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며 오랜 시간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맥심 모카골드다.

이번에 선보인 메뉴는 강렬한 에스프레소 풍미의 '모카골드 킷셋', 전통 요리 지널 레시피의 '모카골드 오리지널', 오리지널에 진한 맛을 더한 '모카골드 부스트', 시원하게 즐기는 '모카골드 아이스', 필터로 새롭게 경험하는 '모카골드 필터' 등이다. 고객들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도록 맥심 모카골드에 특색 있는 맛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모카골드가커피믹스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가장 큰 비결은 50여 년 커피 제조 노하우에 기반한 동서식품의 뛰어난 기술력에 있다.

동서식품은 더욱 다양한 세대의 소비자에게 맥심 모카골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뛰어난 연기력과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 박보영을 신규 모델로 발탁했다.

커피, 설탕, 크림의 황금 비율은 기본이고 엄선한 고급 원두를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언제 어디서나 누가 타도 맛있는 맛을 만들었다.

동서식품은 최근 맥심 모카골드를 카페에서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메뉴 5종을 선보였다. 맥심 모카골드 인스턴트 커피를 다양하게 활용한 연계메뉴는 용

/신원선 기자



이마트 "추석, 와인&위스키 선물하세요" 이마트가 26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와인&위스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기간인 오는 9월 6일까지 다양한 추석 와인&위스키 선물세트를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손진영기자 son@

CJ제일제당 '비비고 떡볶이' 글로벌 공략

2분기 상온떡볶이 매출 2.5배 증가 수출국 29개국→41개국으로 확장 내달 10일까지 CJ더마켓서 할인판매



비비고 컵떡볶이 3종 제품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의 K-스트리트 푸드 전략 품목인 '비비고 떡볶이'가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상온떡볶이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5배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초 29개국이었던 수출국이 현재 미국, 베트남, 유럽, 호주, 남미 등 총 41개국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 점이 주요했다.

비비고 상온떡볶이(오리지널·스파이시·치즈)는 CJ제일제당이 지난해 6

월 K-스트리트 푸드 첫 주자로 선보인 제품이다. 한 입 크기의 쫄깃한 쌀떡과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한국 대표 길거리 음식의 맛을 컵과 파우치 형태로 담아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최근 유럽 내 K-스트리트 푸드 인기가 급증하면서 비비고 상온떡볶이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지난 23일 방송된 tvN 인기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2' 9회에서는 북유럽

아이슬란드에 한식당을 차린 출연진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비비고 컵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노출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비비고 상온떡볶이는 '서진이네2' 촬영지인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유럽 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에스닉 마켓과 온라인몰 중심인 비비고 상온떡볶이의 판매 채널을 향후 글로벌 주요 국가의 메인 스트림 유통 채널로 확대해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9월 10일까지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에서 비비고 상온떡볶이 6종(컵 3종, 파우치 3종)을 할인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헤라, 엠버서더 '제니' 글로벌 캠페인 전개

국내·日·태국서 브랜드 영향력 확장

으로 '나다움'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헤라 측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컨템포러리 서울뷰티 브랜드 헤라가 독자적인 뷰티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영향력 확장에 나선다. 헤라는 글로벌 엠버서더 '제니'와 함께 국내외 일본, 태국에서 글로벌 캠페인을 동시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헤라는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과 립 제품의 신규 색상도 선보인다. 헤라에 따르면,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의 새로운 색상인 '00P1'호는 반투명한 커버와 맑은 베이지 핑크빛 색상의 신제품이다.

헤라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힘들이지 않고도 정교하게 완성하는 고감도 컨템포러리 룩'을 전파할 예정이다.

립 제품 '센슈얼 누드 글로스'의 경우 총 4가지 색상이 추가됐다. 헤라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본연의 입술 색상과 은은한 글로스 제형이 어우러지는 깔끔한 메이크업부터 과감한 메이크업까지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헤라는 브랜드 대표 제품인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과 립 제품 '센슈얼 누드 글로스',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만으로 연출하는 3가지 메이크업 룩을 선보인다. 간결한 메이크업법

/이청하 기자 mlee236@

LG생활건강 '피지오겔' 'DMT 리제너러티브 크림' 이중보습 장벽크림 출시

LG생활건강의 민감피부 전문 더마톨로지컬뷰티브랜드 '피지오겔'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제품군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 보습 장벽 크림 'DMT 리제너러티브 크림'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DMT 리제너러티브 크림'에는 유수분 균형을 관리하는 피지오겔만의 기술인 '뉴 바이오미믹 테크놀로지'가 적용됐다. 해당 기술은 노화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될 때 감소하는 피부 지질 유사 성분인 세라마이드·콜레스테롤·지방산 등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하고, 보습 핵심 성분인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리포좀' 형태로 형성해 준다. /이청하 기자

정관장, 관절·연골 건강 5일만에 개선

'관절닥터 타마본 5Days' 출시

▲관절통증 지표 ▲관절 뻣뻣함 ▲신체적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30초간 반복 일어서기 횟수가 증가하고, ▲관절통증(VAS 통증 점수 측정) 및 ▲관절통증 지수(LFI)가 감소했다. 여기에 30일 섭취 후에는 ▲염증 농도(hs-CRP)도 45%이상 감소했다.

정관장이 5일간의 섭취만으로 다양한 관절 건강 개선이 확인된 기능성 원료를 소재로 한 '관절닥터 타마본파이브데이즈(5Days)'를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관절닥터 타마본 5Days'의 핵심 원료는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롭게 '관절연골건강' 기능성을 인정한 '타마플렉스(타마린드강황주정추출복합물)'다. 핵심소재 '타마플렉스'는 인체적용 시험결과 섭취 5일만에 관절 및 연골 건강 관련 7가지 지표에 대해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관절닥터 타마본 5Days'는 핵심소재 '타마플렉스'에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NAG(N-아세틸글루코사민), 비타민 K, 망간, 비타민E, 비타민D 등을 더한 차별화된 배합으로 한국인의 건강을 잘 아는 125년 정관장의 노하우를 담았다. /신원선 기자

섭취 5일만에 ▲관절건강 지표총점

오늘의 날씨

8월 27일(화) 음력 : 7월 24일

수도권 날씨 25~32°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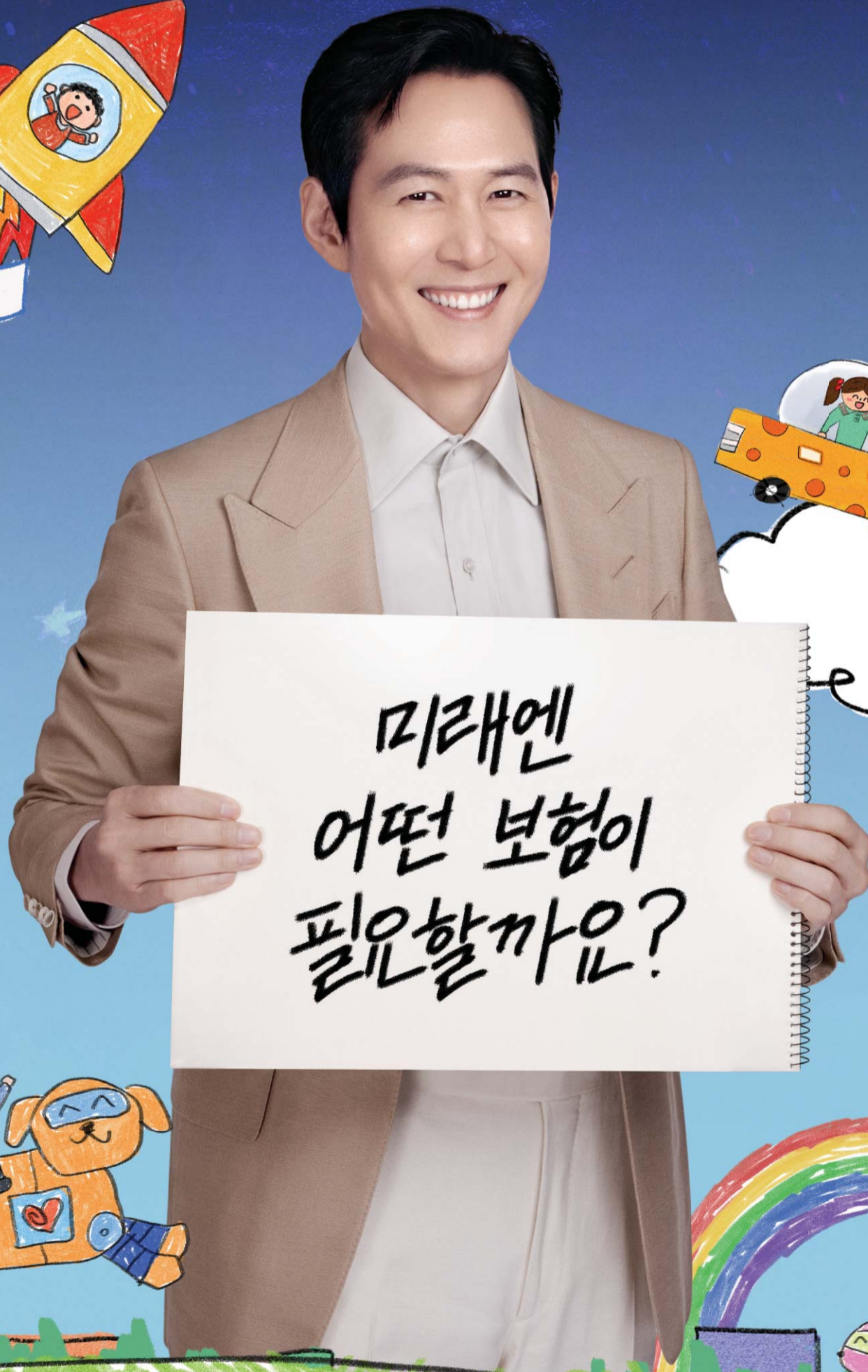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5:58 | 해질 19:08

연천 23/29, 동두천 23/30, 가평 23/29, 파주 23/30, 서울 25/32, 양평 24/30, 수원 25/29, 용인 25/29, 평택 24/31, 백령도 23/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무엇이든 먼저 움직이는 **현대해상**



미래엔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우주여행자보험

플라잉카보험

로봇펫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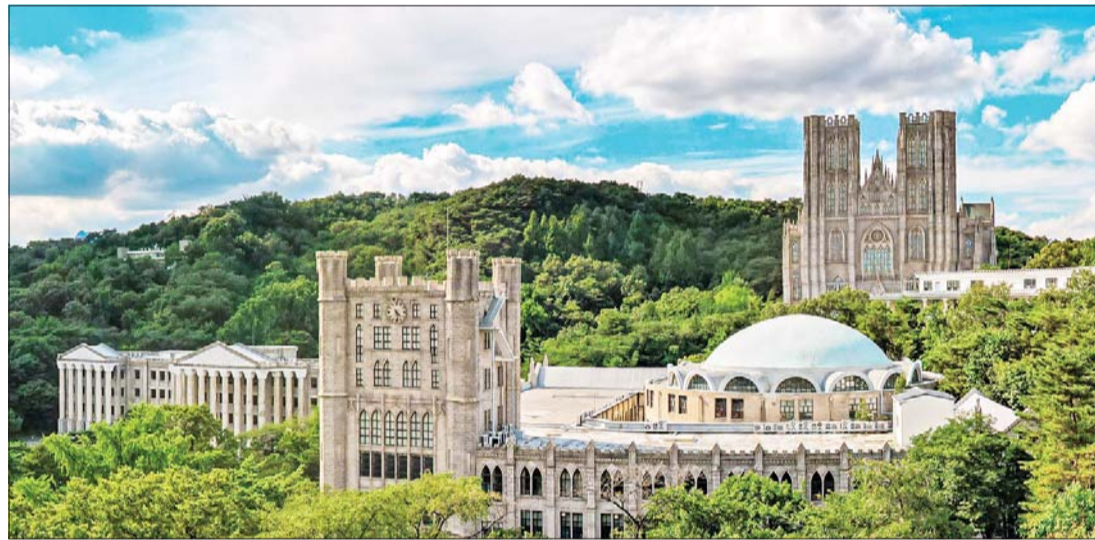
‘의대정원·자유전공·학폭반영’ 변수 작용 논술 활용 등 대학별 맞춤전략 마련해야

2025학년도 일반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대학들은 이 기간에 3일 이상 원서를 신청받는다. 대학별로 원서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물론, 마감시간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원서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일반대학의 총모집인원은 전년보다 2683명 늘어난 34만6584명이다. 이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5%로, 27만5837명을 195개 대학에서 모집한다. 전년 대비 4729명 증가한 수치로, 수시모집 비중은 최근 5년 중 선발비율이 가장 높다. 수시 전형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위주(교과) 15만6763명 ▲학생부위주(종합) 8만342명 ▲논술위주는 1만2210명 ▲실기/실적위주 2만1846명 ▲기타 4676명 등이다. 정원내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12만9834명, 대학별독자적기준·특기자·사회통합전형(지역/기회균형)·지역인재특별전형 등 특별전형 11만5932명이다. 정원의 전형으로는 3만71명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확대됐다.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1469명 늘어난 총 4485명(정원 내)을 전국의 의대에서 모집한다. 이 중 수시모집으로 67.1%인 3010명을 선발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소재 12개 의대에서 1294명(수시 756명/정시 538명), 비수도권 27개 의대에서 3191명(수시 2254명/정시 937명)을 선발한다. 아울러,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많은 대학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거나 계열·단과대 중심의 광역모집을 한다. 무전공제도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전공탐색을 통해 본인의 전공을 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서울지역 대학들은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무전공 선발의 경우에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인원이 많은 경우가 흔하다.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지는 점도 특징이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까지 이뤄진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전체 모집인원 10% 자유전공학부 선발



경희대학교

총 모집인원 중 절반 이상 수시 선발
논술우수자전형의·약학계열 수학 필수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2025학년도 총 모집인원 5384명 중 수시모집으로 55%인 2962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 634명, 학생부종합전형 1533명, 논술우수자전형 477명, 실기우수자전형 318명 등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위주전형으로 2197명을, 실기전형으로 225명을 뽑는다.

올해 경희대 수시모집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시 필수 응시 과목 지정 폐지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탐구영역 2과목 반영 ▲자유/자유전공(무전공) 모집(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위주 / 정시모집: 수능위주)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약 10% 선발(입학 후 100% 학과 선택, 일부 학과 제외)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634명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지역균형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교과종합평가 30%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봉사) 성적 70%를 합산해 총점 순으로 선발하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모집으로 자율전공학부 49명, 자유전공학부 187명을 선발한다. 학과별 모집과 무전공 모집을 병행하는데, 특히 국제캠퍼스 교과전형은 대부분을 자유전공

학부로 선발한다.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모집은 교과종합평가에서 학업 역량만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총 1533명으로, 네오르네상스전형 1055명, 기회균형전형 388명, 고른기회전형 9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전형)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는 면접평가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과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은 다단계 평가가 아닌 일괄합산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류평가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와 비율은 일반학과와 자율전공학부가 구분된다. 전체 모집단위 공통 사항은 ‘학업역량(40%)’과 ‘공동체역량(20%)’이다. 이와 함께 일반학과는 ‘진로역량(40%)’을, 자율전공학부는 ‘자기주도역량(40%)’을 평가한다. 자기주도역량에서 과목 선택과 탐색, 활동과 경험을 반영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총 477명을 선발한다. 논술고사는 ‘인문’, ‘사회’, ‘자연’, ‘의학’으로 나뉘어 실시한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 ‘의·약학계열’은 수학은 필수이고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실기우수자전형에서는 총 318명을 선발한다.



송주빈 입학처장



신입생 증원... 100% 논술전형 도입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2680명 선발 예정... 전년 대비 87명 ↑
고른기회·재직자전형 수능최저학력 미적용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6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보다 87명이 증가한 수치로, 학생부교과전형 652명, 학생부종합전형 1602명, 논술전형 361명, 실기와 실적 위주 전형 65명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논술전형의 신설이다. 논술전형은 학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새롭게 도입됐으며, 합리적 추론과 논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수험생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됐다. 고려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100% 논술로 361명을 모집한다.

논술전형의 인문계열은 인문·사회서술형,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형태로 출제 예정이다. 출제 범위는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약 80분간 진행된다. 출제유형에 대해서는 본교 모의논술의 출제문항과 예시답안을 참고하면 된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업우수전형, 사이버국방전형, 계열적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재직자전형)으로 나뉘어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은 학생부(교과) 성적 80%와 서류 20%를 합산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해당 전형 방식은 학생부(교과) 성적이 80% 반영되므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한 수험생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험생의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해당하는 학업우수전형, 사이버국방전형, 계열적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재직자전형은 지원자의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학업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한 지원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학업우수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계열적합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 종합평가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7분간의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1단계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단, 의학대학원자에게는 다중 미니 면접(MMI 면접)이 실시된다. 계열적합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른기회전형과 재직자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 종합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를 합산한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6분간 진행된다. 고려대 수시모집 면접 평가는 모두 대면으로 시행된다. 이외 입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려대학교 입학처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 입학처장

자유전공학부 운영... 'AI신학' 등 미래인재 육성



13개 전형 856명 선발
내달 9일 14시부터 접수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3개 전형에서 모두 856명을 선발한다.

덕성여대는 교육부의 전공자유선택제 추진에 따라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수시모집에서 총 183명을 모집한다. 또한 교육부의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 배정 결과에 따라 2024학년도에 가상현실융합학과와 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2025학년도에는 AI신학학과를 신설하고 수시모집에서 총 25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총 436명을 뽑



는다. 이 가운데 덕성인재전형II와 기회균형전형 I 장애인 등 대상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4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외의 6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발전역량, 학업역량, 덕성역량을 종합·정성평가한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세 전형 모두

학생부(교과) 100%로 총 264명을 선발한다. 고교추천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별 추천인원에 제한이 없다.

논술전형으로는 100명을 선발하며 논술고사 100%를 반영한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해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자연계열(수리논술)의 경우 공통과목인 수학, 수학 I, 수학 II에서 출제하는 기초를 유지한다. 학생부100%전형과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미술실기전형은 Art & Design대학에서 56명을 선발하며 실기고사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실기고사는

수묵담채화, 인체수채화, 기초디자인, 기초소양 가운데 1개 과목을 택하게 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100%전형(약학대학 제외)과 논술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 상위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한다. 학생부100%전형(약학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과학 상위 1과목) 중 수학(미적분/기하 중 택1)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수시모집원서 접수는 내달 9일 오후 2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김윤 입학처장

논술고사 '약술형' 운영... '인서울' 진학 기회



AI융합학부 등 26개 모집단위 선발
전형 교차지원 가능... 내달 9일 접수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중)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805명을 선발한다. 약학과, 간호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 등 26개 모집단위에서 선발이 이뤄진다. '무전공(전공자유선택제) 선발'은 정시모집에서만 진행한다.

삼육대는 지난해 신설한 논술우수자전형을 올해도 운영한다. 전 학과(약학과, 신학과, 예체능학과 제외)에서 127명을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30%와 논술고사 70% 성적을 일괄 합산해 뽑는다. 학생부는 1



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 교과목 성적을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한다.

학생부 반영비율은 30%이다. 교과 성적 6등급(92점)까지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3점으로 크지 않아 논술고사 점수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때문에 내신·수능모의 3등급 이하의 중상

위권 또는 중위권 수험생이 '인서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 평가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이다. 특히 탐구 1과목 3등급으로도 충족이 가능하다.

논술고사가 '약술형 논술' 형식으로 치러진다는 점도 수험생에게는 큰 장점

이다. EBS 수능완성, 수능특강 등 수능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학교 정기고사의 서술·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한다. 평소 학교 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충실하게 준비한 학생이라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다.

세움인재전형(종합)은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205명을 선발

한다. 1단계 서류평가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해 뽑는다. 서류평가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 정성평가한다.

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전형은 165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한다. 체육학과와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실기 성적도 반영한다.

모든 전형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다.



강경아 입학처장

서울캠퍼스 자유전공 288명 선발... 논술전형 신설



서울·천안캠퍼스 1904명 모집
내달 9일 10시부터 원서접수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2025 수시모집에는 정원내와 정원외를 포함해 총 1904명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 총 948명, 천안캠퍼스 총 956명이다.

서울캠퍼스 수시모집 모집인원은 정원내에서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349명,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226명, 논술(논술전형) 101명, 실기/실적(실기전형) 138명이다. 정원외에서는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4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130명이다.



천안캠퍼스는 정원내에서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409명,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 228명, 실기/실적(실기전형, 특기자[체육]전형) 218명, 정원외에서는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71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

졸재직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30명이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롭게 선보이는 자유전공 선발과 논술전형의 신설이다.

올해 자유전공으로는 총 288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인문

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 38명, 경영경제계열 29명을 선발하고 자연계열에서 IT계열 24명, 이공계열 17명을 선발하며 예체능계열에서도 12명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 자유전공은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와 논술(논술전형)으로 선발하되 예체능계열에서는 논술전형을 실시하지 않는다. 천안캠퍼스에서는 예체능계열에서 스포츠융합자유전공학부 52명, 아트&컬처계열 41명, 자연계열에서 공학계열 75명을 선발한다. 아트&컬처계열과 공학계열은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논술전형 신설이다. 논술전형은 서울캠퍼스에서만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에 의해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이다. 총 101명을 선발하며, 학생부교과 10%와 논술고사 90%를 반영하는데, 약술형 논술로서 예체능계열, 융합경영학과, 국가안보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에서 실시한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8문항, 수학 2문항이 출제되며, 자연계열(애니메이션 전공 포함)의 경우 국어 2문항, 수학 8문항이 출제된다. 각 문항은 본문 또는 지문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단답형, 단문형 답안을 작성하는 서술형 시험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서접수 기간은 내달 9일 10시부터 13일 18시까지다.



강태구 입학처장

군 계약학과 ‘사이버국방전형’ 신설... 최고 수준 인재교육 기회도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전체 모집인원 55.2% 수시 모집
AI로봇학과, 지역균형으로 32명 선발

세종대학교(총장 엄중화)는 전체 모집인원의 약 55.2%인 1617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지역균형, 항공시스템공학)으로 393명, 학생부종합전형(세종창의인재(면접형·서류형), 기회균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5도학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사이버국방, 국방시스템공학) 774명, 논술우수자 전형 340명, 실기/실적전형(실기우수자, 예체능특기자)으로 110명을 선발한다.

세종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등 2개 첨단학과를 신설해 스마트



생명산업융합학과, AI로봇학과, 인공지능학과는 81명을 선발한다. 지역균형전형, 논술우수자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으로 223명을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는 교과성적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 학생부 반영 교과 등 반영 방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자유전공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만을 반영하며 공통/일반선택과목 80%, 진로선택과목 20%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역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한다.

육군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계약학과 선발 전형인 사이버국방전형은 2025학년도에 신설됐으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 체력검정 및 육군본부 주관 전형(합/불 판정)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 외에 세종대는 군 계약학과로 학생부교과(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학생부종합(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 전형을 운영하며 각각 공군 및 해군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이다.

세종대는 최고 수준의 신입생 장학금으로 유명하다. 세종인재양성프로그램은 신입생 중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수준 높은 심화교육과 각종 특전을 제공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후 대학원 학업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대상 학생은 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재정적 지원과 Sejong Honors Program(SHP)을 통해 세종글로벌 창의인재로 거듭난다. 1대 1 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사·석사·박사 3+3 프로그램(학사 3년, 석·박사 3년)도 이수 가능하다. 세종대는 10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변재문 입학처장

자유전공학부 47명 선발... 학생부종합, 면접 50% 반영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논술전형서 논술 비율 80%로 확대
과기부 ‘SW중심대학’ 선정, 19명 선발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2025학년도 전체 모집인원(3029명)의 약 57%인 1739명(정원의 포함)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2025학년도 숭실대 수시모집의 특징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반영 비율 30%에서 50%로 확대 ▲학생부종합(SW우수자전형) 전형의 금융학부 모집단위 신설 ▲학생부교과, 논술우수자전형의 인문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로 완화 ▲논술우수자전형 논술 60%+학생부 교과 40%에서 논술 80%+학생부 교과 20%로 변경 ▲학생부교과전형의 자유전공학부 모집단위 신설(자유



전공학부 인문 20명, 자유전공학부 자연 27명 선발) 등이다. 학생부종합 SSU미래인재전형의 경우 총 6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단계는 서류종합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50%+면접 50%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은 130명,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38명의 모집인원이 배정돼 있다.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은 일괄합산전형으로 서류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단계 SW중심대학에 재선정돼 올해도 학

생부종합(SW우수자전형)전형으로 총 1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단위 별로 컴퓨터학부(4명), 글로벌미디어학부(4명), 소프트웨어학부(4명), AI융합학부(5명), 금융학부(2명) 선발하며, SW우수자전형의 전형방법은 SSU미래인재전형과 동일하다.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전형)는 총 473명을 선발한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전형)에서 베어드학부대학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자유전공학부(인문) 20명, 자유전공학부(자연) 27명, 총 47명을 선발한다. 자유전공학부는 수험생 성향에 따라 인문/자연 두 모집단위로 분리 선발할 예정이지만 입학 후 계열/인원 제한 없이 모든 모집단위로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일부 계열 제외) 논술우수자전형 모집인원은 총 253

명이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논술 80%+학생부교과 20%이다.

학생부우수자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의 인문·경상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지난 2024학년도 국수영탐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에서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로 완화됐다.

숭실대는 수시모집 원서를 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논술고사는 11월 16일(토), 학생부종합(SSU미래인재전형) 면접은 11월 29일(금), 학생부종합(SW우수자, 고른기회, 특수교육대상자전형)과 정보보호특기자전형 면접은 11월 30일(토)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장성연 입학처장

지역균형전형 648명 모집, 학생부교과 100%에 수능최저 적용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수시모집서 전체 67%인 2686명 선발
70주년 맞아 캠퍼스 조성 등 특성화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985명) 중 2686명(67.4%)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인 인하미래인재전형에선 1020명을 선발한다. 1단계는 서류 종합평가(100%), 2단계는 서류종합평가(70%)와 면접평가(30%)를 반영해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의 모집인원은 648명이다. 소속(졸업)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다. 학생부교과 성적 100%에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한 전형이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458명을 선발하며, 논술 70%와 학생부 30%를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를 축소해 논술의 실질적 영향력을 더

욱 강화했다. 인하대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무는 융합형 인재, 첨단분야 인재 등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 광역화’에 나섰다. 먼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강화하는 전공자율

선택제를 도입했다. 융합학부 중심의 프런티어창의대학을 신설하고, 자유전공융합학부와 단과대학의 5개 융합학부를 개설했다.

프런티어창의대학 이외에 자율전공선택이 가능하도록 신설된 단과대학내 융합학부도 있다.

공과대학 내 전기전자공학부는 심화트랙으로 반도체집적회로, 전기에너지, 지능제어계측, 컴퓨터미디어통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문과대학내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는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화 등의 전공을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인하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이차전지융합학과와 첨단바이오의약학과도 신설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증원도 눈에 띈다. 의과대학 의예과는 입학정원이 확대됐

고, 간호학과는 바이오·의과학 융합 특성화를 이끌기 위해 간호대학으로 승격했다.

인하대는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70년의 역사를 품은 용현캠퍼스, 항공·우주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송도 항공우주융합캠퍼스, 송도에 새롭게 조성할 계획인 인하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세워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이 되는 게 인하대의 목표다.

인하대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다. 전형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모든 전형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신동훈 입학처장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한국 포함되나 삼성, 보급형으로 맞불 04



Life

석촌호수에 '랍스터 킹' 뜬다 긍정기운 전달 1



전공개방모집 확대... 수능최저학력 적용 시 과목지정 해제



CAU융합형인재 면접 폐지, 서류 100% 지역균형전형, 고교별 최대 20명까지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2025학년도 총 모집인원 4868명 중 수시모집을 통해 총 2793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500명(18%), 학생부종합전형 1413명(51%), 논술전형 478명(17%), 실기전형 402명(14%)을 모집한다.

전년도까지 학생부종합전형 CAU 융합형인재에서 실시했던 2단계 면접이 폐지돼 서류 100% 전형으로 변경됐다. 기존 서류 100%로 진행했던 CAU 탐구형인재는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전공개방모집이 확대돼 기존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일부 모집단위에 서만 실시하던 전공개방모집이 정시모집 다군 창의ICT공과대학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정시 수능성적 반영시 계열별 수능 응시영

역 및 과목 지정 또한 해제됐다. 그 외의 대부분의 전형 내용은 입학전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4학년도 전형방법을 대부분 유지한다.

학생부위주전형(교과/종합)으로 수시 선발인원 68%인 191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은 고교별로 최대 20명까지 추천 가능하며, 서울캠퍼스 모집단위는 계열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학생부종합 CAU 융합형인재, CAU 어울림, 기회균형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며, CAU 탐구형인재전형은 1단계 서류 100%로 3.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 서류 70%, 면접 30%를 적용해 최종 합격생을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70%, 학생부 30%(교과20% + 비교과(출결) 1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언어논술 3문항이 출제되며, 경영경제계열은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이 출제된다.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4문항이 출제된다. 중앙대는 수험생이 고교교육과

자기주도학습만으로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논술 모든 지문을 교과서를 활용해 출제하고 있다.

실기전형은 실기형에서 358명, 특기형에서 44명을 모집한다. 실기형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실기고사를 반영하며 모집단위별 반영 비율이 상이하다.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중 학생부위주전형(교과 및 종합)과 실기·실적전형의 체육특기자전형에 대해서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량적으로 감점을 부여한다. 원서접수는 9월 10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상명 입학처장

학종 'SW인재' 면접 없이 선발... 논술전형은 논술 100%



무전공선발, 유형 나눠 835명 모집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한국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2086명을 선발한다. 전형 별로 학교장추천전형 375명,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488명,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34명,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525명, 기회균형전형 191명, 논술전형 473명을 선발한다. 모든 전형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기회균형전형은 별도의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외대는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에서 유형1, 유형2로 총 835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무전공 선발했던



116명에서 719명이 증가한 규모이다. 유형별로 유형1에서 324명을 선발

할 계획이다. 유형1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서울캠퍼스 자유전공학부(서울)가 신설돼 100명을 선발하며, 글로벌캠퍼스 자유전공학부(글로벌)는 지난해 116명에서 108명 증가한 224명을 2025학년도에 선발할 계획이다. 유형2에서는 511명을 대학·계열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 SW인재는 2025학년도로 경우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로써 한국외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2단계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은 면접형이 유일하다.

면접형/SW인재와 서류형/기회균형전형의 차이는 서류평가의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이다. 면접형/SW인재는 학업역량 30%, 진로역량 50%, 공동체역량

20%를 반영하며, 서류형/기회균형전형은 학업역량 50%, 진로역량 30%, 공동체역량 20%의 비중으로 서류를 평가한다. 면접형에서만 실시하는 2단계 면접평가는 제출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으로 학업역량 40%, 진로역량 40%, 공동체역량 20%를 반영한다.

논술전형은 전형방법이 변경돼 논술고사 반영 비중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100%로 늘어났다. 논술고사 비중이 커진 만큼 학생부교과는 올해부터 반영하지 않는다.

논술전형에서 글로벌캠퍼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신설돼,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모두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캠퍼스 LD/LT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LD/LT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캠퍼스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캠퍼스 모든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이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한국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류제출은 19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정석오 입학처장

학생부 성적반영 대폭 간소화... '학생부 교과 면접전형' 신설



모든전형·학과 수능 최저기준 없어 융합형 인재 양성 '광역학부제' 시행

호서대학교(이하 호서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의 89.1%인 2565명(정원 내)을 모집한다. 수시전형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학생부교과 학생부전형'으로 1231명(정원 내)을 선발한다. 이는 모집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서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선발한다. 모든 전형 및 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올해 학생부 성적 반영은 전년 대비 대폭 간소화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 등급 산출 과목은 석차등급 상위 12개 과목과 진로선택 상위 3개 과목으로 총 15개 과목을 반영한다. 반영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다.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으며, 진로선택 과목이 3개 미만인 경우 부족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중 상위 15개 과목을 자동 반영한다. 반영 방법이 작년과 다르니, 수험생은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

지 학생부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학생부교과 면접전형'이 신설됐다. 호서대 면접전형은 항공서비스학과 47명을 선발하며, 학생부교과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한다. 호서대의 대표적 학생부종합전형인 학생부종합 호서인재전형에서는 577명을 선발한다.

특히 2025학년도에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됐다.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는 학생은 1학년에 각 계열 기초 및 진로탐색 과정을 이수한 뒤, 2학년에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단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등의 일부 학과는 불가하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전형'으로 선발되며 선발규모는 15명이다.

또한 호서대는 미래 사회 수요 기반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광역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학부제'는 유사 학문의 학과를 하나의 학부로 통합하고 학부 내 관련 트랙을 운영하는 학사구조다. 광역학부에 입학한 신입생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거쳐, 학부에 개설된 트랙을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호서대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2027년까지 총 1840명의 반도체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최인호 입학처장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를 기다리던 희망 한 켠레

오늘따라 막히는 것만 같은 퇴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 또래의 사연을 들으니
늦은 시간 교실에서 기다릴
꼬맹이 얼굴이 더 아른거린다

뒤늦게 찾아와 준 보물 같은 녀석인데
바쁜 부모 때문에 늘 같이
바쁘기만 한 것 같아 미안하네

어수선한 기분으로 도착한 교실 앞
신발장엔 늘 그렇듯 작은 신발 한 켠레...

문 여는 소리에
세상 해맑은 미소로 달려오는 네 모습이
어찌나 짝하면서 고마운지

늘봄 같은 아들
언제나 오늘처럼
환하게 웃으며
집에 가자!

**KB금융그룹은
돌봄공백을 채우는 늘봄학교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교육부와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유치원에 2,256개의 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36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어가며 대한민국의 초등돌봄체계 발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KB 금융그룹**